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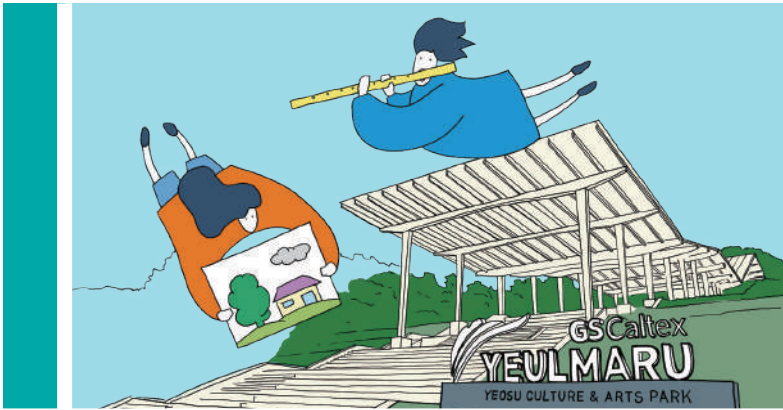
2025
No.123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BULLETIN





좋은 에너지는 계속 이어진다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이름, 만날 때마다 채워지는 에너지!
존재만으로도 세상에 힘이 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플러스 허브'에서 만들어 가는 일상 속 좋은 에너지에서
나눌수록 커지는 따뜻한 삶의 에너지까지...
GS칼텍스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의 가치를 이어 갑니다.



에너지로 앞서가는 편리한 생활

에너지플러스 허브

EV 충전, Smart 세차, 물류거점 서비스 등
모빌리티 인프라와 라이프 서비스가 결합된 미래형 주유소



에너지로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

에너지 나눔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및 난방유 지원
지구톡톡 지구를 위한 시민 행동변화 캠페인
마음톡톡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술치유 지원
에너지플러스 장학사업 다문화 가정 자녀 인재 양성 지원
GS칼텍스 예울마루 시민·지역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증진

I am
your
Energy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 04_ 교우의 밤
- 16_ 상반기 상임이사회
- 18_ 학위수여식
- 20_ 경영대학장 인터뷰
- 25_ 교우동정
- 29_ 교우기부
- 31_ 교우 인터뷰
- 34_ 교우기고
- 39_ 학번별 소식
- 60_ 교우 신간
- 61_ 경영대 소식
- 62_ 모교 소식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보 호상 2025 통권 제123호 Vol.45

발행일 2025년 03월 28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발행인 이동섭
편집인 양정인
인쇄 (주)보림에스앤피 02-2263-4934
주소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 (고대 교우회관 310호)
전화 02-922-3762
팩스 02-922-3763
이메일 kubsa@kubsa.or.kr
홈페이지 www.kubsa.or.kr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910009-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우회)
가격 3,000원

E1이 펼치고 모두가 누리는 **E10 | GREEN 미래**

친환경 LPG부터 수소, 전기, 태양광, 풍력까지
E1이 환경과 에너지가 친구되는 세상을 펼쳐갑니다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

2025년 행사일정

* 아래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 시	행 사 명	장 소
2월 20일(목) 18:00	상반기 상임이사회	파크루안(역삼)
5월 8일(목) 12:00	명예교수 사은회 오찬	패컬티 하우스
5월 10일(토) 10:00	힐링트레킹	개운산
6월 13일(금) 11:00	상반기 골프대회	성문안CC
7월 17일(목) 18:00	하반기 상임이사회	미정
9월 19일(금)~ 20일(토)	정기고연전	
9월 20일(토) 18:00	고연전 뒤풀이 축제	미정
9월 26일(금)	골프고연전	미정
10월 16일(목) 12:00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선정회의	미정
10월 30일(목) 18:00	회장단 식사	미정
12월 4일(목) 18:30	제43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5층)

제42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의 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5F)

경영대학 교우회는 2024년 12월 6일(목)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제 42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섭 경영대 교우회장, 승명호 고려대학교 교우회장, 구자열 고려대학교 발전위원장, 김동원 총장, 조성호 전 경영대 교우회장 직무대행, 김언수 경영대학장, 권오섭 경제인회 회장, 정재연 강원대학교 총장, 김미숙 사범대 교우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하여 원로교수, 현직교수,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는 경영대학 교우들이 자리를 빛냈다.

이날 55학번부터 2024년 8월에 졸업한 20학번 교우들까지 500여명이 참석해 경영대 교우회의 2024년 활동상을 돌아봤으며 2025년 개교 120주년이자 경영대학 12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한 비전을 확인했다.





97학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회를 맡은 안종욱(경영89) 교우와 정이나(가교08) 교우의 개회선언과 동시에 공식 행사가 시작됐다.

이동섭(경영89) 경영대학 교우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영대 교우회에 화합과 모교의 발전을 기원하는 경영대 교우의 밤 행사가 올해로 42회를 맞이했다. 바쁘신 와중에도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선후배 교우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경영대 교우들의 폭넓은 사랑을 받은 힐링트레킹, 친선 골프대회, 연세대와 새로운 교류의 장이 된 골프고연전, 젊은 교우들의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한 XYZ모임, 경영대 재학생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는 잡다한 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우회 활성화에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교우회 활동에 교우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에서 교우간 우정을 나누는 즐겁고 특별한 시간 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승명호(무역74) 고려대학교 교우회장은 “1982년 첫발을 내딛은 경영대학 교우의 밤은 선후배가 함께 화합하고 모교의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매년 보여주신 교우 여러분의 뜨거운 애정과 헌신 덕분에 경영대학은 한층 더 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행사를 통해 모인 정성은 후배들에게 희망을, 모교에게는 더 나은 내일의 초석이 되어 왔다”며 그간 보내준 성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승명호 교우회장은 “이제는 AI와 디지털 혁신시대를 맞아 경영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 자리에 계신 경영대 교우들께서 새로운 시대를 선

도하며 모교의 명예를 더욱 빛내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동원(경영78) 고려대학교 총장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1905년 고려대학교 첫 출발과 함께한 최초의 경영대학이며 12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견인해 온 리더들을 배출해 왔다. 2024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들을 비롯하여 그동안 경영대 교우회가 선정한 자랑스런 수상자들은 우리 경영대학이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중심축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경영대학 교우들의 위상을 확인했다. 또 김동원 총장은 “개교 120주년을 맞아 고려대가 인류의 미래사회 공헌하는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경영대 교우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교육환경 개선, 연구 네트워크 조성 등 각종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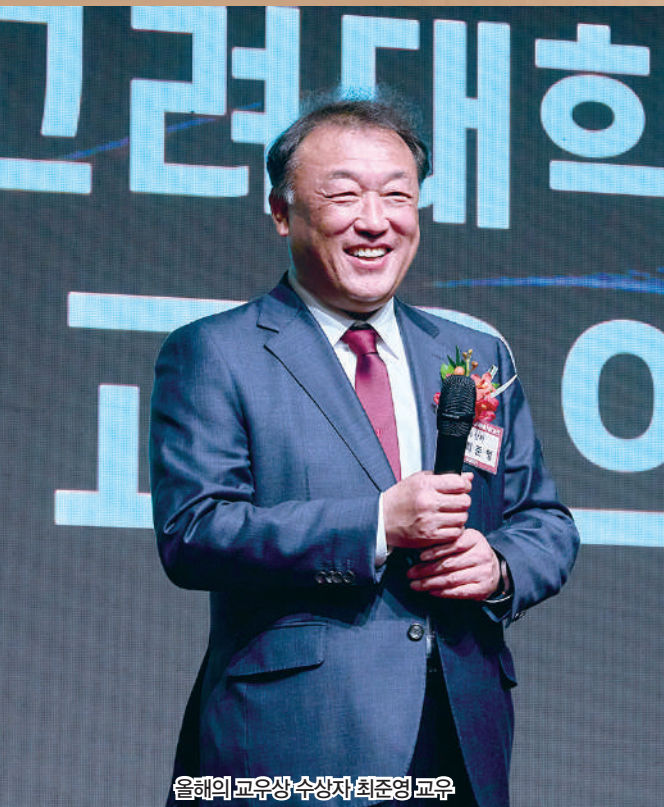
이어서 김언수(경영81) 경영대학장의 학사보고가 이어졌다. 2024년에 새롭게 신설된 경영학전문박사(KUBS-DBA)과정에 많은 지원이 있었고, CPA 합격 1위를 고려대가 9년째 수성하고 있음을 알렸다. 최근 몇몇 경영대 학생들의 시를 활용한 기술로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모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사례를 언급하며 AI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엔지니어와 협업하여 경영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2025년 개교 120주년 고려대학교의 Next Intelligence에 발맞춰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또한 김언수 학장은 경영대학이 2030년까지 글로벌 TOP300이 멀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경영대에 장학금 전달



96학번 동기회에게 감사패 증정(우 신 교수가 대리 수상)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최준영 교우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최창규 교우, 이진우 교우

2023년 제41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당시 6000만 원을 기탁한 96학번 동기회(김남기 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으며 97학번 동기회(강민 회장은) 4000만 원을 조성하여 경영대에 전달했다. 79학번 동기회(이상현 회장)도 1년에 3500만 원씩 5년간 총 1억 7500만 원의 장학금을 '79글로벌스칼라십'이라 명명하여 전달할 예정이며 감사의 뜻을 담아 이상현 79학번 동기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폭넓은 대외활동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경영대학의 위상을 드높인 교우에게 수여하는 2024년 '올해의 교우상'은 공직자 부문에 김완섭(경영87) 환경부 장관이, 기업가 부문은 전찬혁(경영88) 세스코 회장이, 전문경영인 부문은 최준영(경영82) 기아 대표이사 사장이 수상했다.

또한 특별상 부문에는 이진우(경영89) 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과 최창규(경영90) 나무경영아카데미 이사/909 회장이 수상했다.



2부 순서는 케익커팅식과 함께 시작됐고 유상옥(경영55) 코리아나 화장품 회장, 구자열(경영72) 고려대학교 발전위원장, 이충진(경영81) KUBS Ladies 회장의 건배사가 있었으며 만찬 시간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선후배 동기들의 얼굴을 보며 회포를 풀고 덕담을 주고받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교우들의 가족과 타학과 교우들의 간단한 소개시간도 있었다.

계속해서 색소폰리스트 안드레 황의 공연과 팬텀싱어 출신 크로스오버 포마스의 품격있는 공연으로 이어졌다. 특히 두 공연팀의 콜라보 공연인 'You raise me up'의 열정이 담긴 무대와 포마스의 '민족의 아리아'는 행사에 참석한 모든 교우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여러 교우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협찬한 경품은 추첨 이벤트로 진행하여 많은 교우들이 혜택을 누렸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응원단의 뜨거운 무대와 교가, 교호 제창으로 한마음이 된 교우들은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될 2025년 모교와 경영대의 120주년을 축하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경품 창조하신 분 명단

격조 높은 경영대학 교우의 밤을 위하여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NO	성명	학번	소속 및 직위	찬조내역
1	엄종일	61	(주)럭스산업개발 회장	생활용품 세트 20개
2	이학수	65	(주)엘앤비 인베스트먼트 회장	상품권 200만원
3	허광수	65	(주)삼양인터내셔널 회장	핑 퍼터 3개
4	김영환	66	(주)벽제외식산업개발 회장	벽제갈비 30만원권 3매, 봉피양 20만원권 5매
5	박성훈	66	재능그룹 회장	포켓용 수첩 550개
6	이차복	68	안진회계법인 전대표	골프바람막이점퍼 12점
7	허정수	69	GS네오텍 회장	상품권 200만원
8	70학번 동기회			현금 100만원
9	이재동	70	(주)전인CM 회장 / 서현회계법인 고문	현금 100만원
10	한대근	70	경상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회장	해운대 영무파라드호텔 1박 숙박권 2매
11	구자열	72	고려대학교 발전위원장 / (주)LS그룹 이사회 의장	LS상품권 200만원
12	김 윤	72	(주)삼양홀딩스 회장	55인치 LG UHD TV 1대
13	강호갑	74	(주)신영 대표이사 회장	현금 300만원
14	승명호	74	고려대학교 교우회장 / 동화그룹 한국일보 회장	다이슨 에어랩 id 멀티 스타일러 앤 드라이어 세트 2개
15	정몽원	74	HL그룹 회장	광고협찬 300만원
16	한호석	74	청탐산업(주) 대표이사	현금 100만원
17	허경수	75	코스모그룹 회장	고급 와인 12세트, 닌자 무선 블라스트 6대
18	박현주	78	미래에셋그룹 회장	광고협찬 300만원
19	정몽진	79	(주)KCC 회장	광고협찬 300만원
20	이선용	80	베어트리파크 대표	현금 100만원
21	정몽규	80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정선 파크로쉬 숙박 SUITE객실(1박) 3매
22	김언수	81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장	고대 벽걸이 달력 700부
23	박수근	81	(주)비에스이 대표이사	마스크팩 리페어프로그램 90세트
24	이충진	81	ALGOVITAL KOREA 대표	ALGOVITAL 화장품 20개
25	전찬혁	88	(주)세스코 대표이사 회장	광고협찬 1000만원
26	이동섭	89	경영대학 교우회장 / 일진그룹 회장	75인치 LG QNED TV 1대
27	정경한	89	성담 부회장	광고협찬 300만원
28	정의선	89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현금 200만원
29	김평국	89	(주)디유넷 대표이사	YOBO소주 2입 20세트
30	최창규	90	(주)나무경영아카데미 이사	현금 100만원
31	심 건	97	(유)에버스파이어 파트너스 대표	후성코퍼레이션 커피드립백 세트 10box(120만원 상당)
32	천영석	00	(주)트위니 대표이사	현금 50만원
33	정진혁	04	(유)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대표이사	Q10max 9도 드라이버 1개, 글로리 드라이버1개, 퍼터3개
34	권오섭	지질78	경제인회 회장 / 엘앤파코스메틱(주) 회장	현금 100만원, 메디힐 마스크팩세트(참가자 전원 증정)
35	권효준	국문10	LG생활건강 음료마케팅 팀장(BM) (경영82 우상현 교우 머느리)	올림피아드 864개
36	파르나소호텔(주)			그랜드 키친 2인 뷔페 무료 이용권 2매

* 행사당시 소속과 직책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직자 부문



환경부

장 관

김완섭 교우
(87학번)

김완섭 교우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87학번으로서,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30여 년간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산업정보예산과장, 사회정책과장, 노동환경예산과장, 예산기준과장 등을 거쳤다.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BRD)에 선임 자문관으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이후 기재부에서 공공혁신기획관, 재정성과심의관, 부총리비서실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을 거쳐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정통 경제 관료로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후 환경부 장관으로 현재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복지 분야의 정책에 큰 관심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지방 활성화에 관한 관심으로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인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최초로 추진하였다.

마찬가지로 환경부에 부임해서도 녹색인프라 지원펀드 4천억 원을 조성하는 등 다른 여러 국가들의 녹색산업 개발과 투자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의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CNG 버스 도입 및 환경 분야의 예산 등 국가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기후 위기 시대의 환경부 장관으로서 기후 적응, 배출권거래제, 기후테크 및 산업 등 다양한 기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플라스틱 협약 당사국총회에 수석대표로서 협약의 성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가 부문



(주)세스코

회 장

전찬혁 교우
(88학번)

전찬혁 교우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88학번으로, 1992년 세스코에 입사 후 초기부터 30여 년간 직접 회사를 총괄 운영하여 성장을 이끌어왔으며, 2023년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하며 세스코, 나아가 대한민국 해충방제업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입사 당시 전형적인 기피 업종으로 여겨지던 소규모 회사에서 창업자 아들의 신분을 숨기고 4년간 평사원으로서 직접 해충을 방제하는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왔다.

전찬혁 교우는 대중들의 편견을 비롯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감하고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하여 오늘날 전 세계 어느 경쟁사와 비교해도 15년 이상의 초격차 기술을 가진, 6000명이 넘는 임직원이 근무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위생 기업으로 회사를 성장시켰으며, 이제 해충방제를 넘어 글로벌 종합 생활환경 위생기업으로 거듭나 깨끗한 세상을 만들고 풍요로운 삶을 건언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고려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의료원에 연구발전기금을 장기간에 걸쳐 기부하며 세스코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바이러스병연구소가 차단 방역시스템을 공동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일은 모교와 동문의 큰 자랑이다.

CEO 부문



기아(주)

대표이사 사장

최준영 교수
(82학번)

최준영 교수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82학번으로, 1990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이후 현대자동차그룹 내 기아자동차 노무지원사업부장, 경영지원본부장, 국내생산담당을 거치면서 국내외 어려운 노사환경 속에서 서로 상생하는 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회사의 조직문화가 글로벌 선진기업 수준으로 변모하는데 이바지하였다.

2018년 기아자동차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코로나 확산,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및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환경 변화 속에서도 국내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2021년부터는 기아 주식회사로 사명을 개명하고, 고객중심의 회사로 탈바꿈하기 위한 Plan S 전략을 기반으로 ESG경영, EV시장 확대 및 PBV 신규사업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기아는 2023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 이익률을 기록했고, 2024년에도 그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 나가는 중이다.

최준영 교수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2022년부터 기아 타이거즈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취임 3년만에 코리아시리즈 우승을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도 보여주었다. 아울러 기아가 전동화 기반의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이끌고 있다.

특별상 부문



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

이진우 교수
(89학번)

이진우 교수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89학번으로, 1995년 매일경제신문에 입사한 이후 30년간 언론인으로서 한 길을 걸어왔다.

일선 기자로서 초창기 시절, 금융기관과 정부 부처 현장을 직접 뛰며, 외환위기 전후 격변하는 한국 경제를 생생히 목격했다. 이후 워싱턴 특파원으로 해외 경험을 쌓고, 2017년에는 경제부장으로서 한국 사회의 숨겨진 담합 구조를 파헤치는 연속 기획 보도를 이끌며 각종 언론상을 수상했다.

또한 증권부장과 산업부장을 거치면서 복잡한 경제 이슈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고, 한국 경제가 세계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썼다.

2021년과 2022년에는 항공우주 산업과 기후 기술을 주제로 한 국민보고대회에 발표자로 직접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2022년 9월부터 2년간 편집국장으로서, 자유 시장경제와 창조적 지식사회를 선도하는 목표를 가지고 뉴스 콘텐츠 제작을 총지휘하며 한국언론의 질적 성장을 이끌었다.

이러한 공로로 2023년 '한국바른언론인대상'을 수상하고, 제 29회 '장한 고대 언론인상'을 수상하였다. 현재는 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 언론과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별상 부문



(주)나무경영아카데미

이사

최창규 교수
(90학번·909회장)

최창규 교수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90학번으로, 1994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삼일회계법인을 거쳐 2000년부터 25년간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양성하는 학원에서 재무회계 과목을 강의하고 학원을 운영하였다.

소위 회계학 1타강사로서 수많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합격자를 배출하였고, 특히 고려대학교가 공인회계사 합격자 1위를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경영대학 교우회는 젊은 교수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1년 909모임을 만들었는데 909모임은 90학번부터 99학번까지의 모임으로, 최창규 교수는 초대 회장을 맡아 2011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교우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90학번조차 경영대 동기모임 대표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솔선수범하여 순전히 개인의 역량만으로 909모임을 만들고 이끌어 온 것이다.

이후 2015년 경영대학 교우의 밤 주관 학번인 90학번 동기회 회장을 맡아 1억6700만 원의 장학금을 모아서 경영대학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성과를 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91학번부터 97학번까지 경영대학 교우의 밤 행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을 도와 매년 경영대학 교우의 밤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했다.

2011년부터 14년간 교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결같이 봉사하고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협찬을 진행해왔다.

역대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년도	이름	회사
1984	김상홍(41)	삼양사 회장
1985	이명박(61)	현대건설 회장
1986	구두회(49)	호남정유 사장
1987	이종원(48)	엘지합동법률사무소 대표
1988	이준범(50)	고려대학교 총장
1989	이양섭(57)	현대자동차 사장
1990	장진호(71)	진로그룹 회장
1991	김희집(55)	고려대학교 총장
1992	이상일(57)	일진산업 사장
1993	이경식(53)	경제기획원 장관
1994	이우영(55)	중소기업은행장
1995	김익철(62)	뉴코아 회장
1996	장재국(75)	한국일보 회장
1997	이석호(55)	주리원백화점 회장
	정장호(59)	LG텔레콤 부회장
1998	남궁석(61)	삼성SDS(주) 대표이사
1999	유상옥(55)	(주)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정덕구(67)	산업자원부 장관
	김기재(69)	행정자치부 장관
2000	이윤재(53)	(주)피죤 회장
	이학수(65)	(주)삼성전자 사장
2001	김승유(61)	(주)하나은행 은행장
	김신경(65)	신한다이아몬드공업(주) 대표이사
2002	배정충(65)	삼성생명보험(주) 사장
	정몽진(79)	(주)금강고려화학 회장
2003	허광수(65)	(주)삼양인터내셔널 회장
	윤진식(67)	산업자원부 장관
2004	오영교(66)	KOTRA 사장
	허창수(67)	(주)GS홀딩스 회장
2005	장경작(61)	(주)호텔롯데 대표이사 사장
	박성훈(66)	(주)재능교육 회장
2006	유병택(63)	(주)두산 대표이사 부회장
2007	구자훈(67)	LIG손해보험(주) 회장
	김용덕(69)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2008	김 인(68)	삼성SDS(주) 대표이사 사장
	김 윤(72)	(주)삼양사 대표이사 회장
	구자열(72)	LS전선(주) 대표이사 부회장
2009	최상영(69)	영스틸 대표이사
	구본능(70)	희성그룹 회장
	김동수(74)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2010	어윤대(63)	KB금융지주 회장
	조남호(69)	한진중공업 회장

년도	이름	회사
2011	전윤자(51)	전 숙녀협동조합 이사장
	허정수(69)	GS네오텍 회장
2012	유휘성(58)	조흥건설 사장
	안덕수(64)	새누리당 국회의원
	나완배(70)	GS에너지 부회장 겸 대표이사
2013	송명호(74)	동화홀딩스 회장
	김창수(73)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
	이완경(73)	GS EPS 대표이사
2014	문덕규(70)	SK 네트워크(주) 사장
	추경호(79)	국무조정실 실장
	*제1회 특별공로상 이종진(81) 알고비탈코리아 대표이사	
2015	정몽원(74)	한라그룹 회장
	강호갑(74)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정재찬(75)	공정거래위원장
	*제2회 특별공로상 장치평(79) 아스트로너지솔라코리아 대표이사	
2016	구자용(73)	(주)티 대표이사 회장
	이재홍(77)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제3회 특별공로상 김동원(78)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17	서영률(69)	PT.PRATAMA ABADI INDUSTRI 대표이사 회장
	김영식(75)	삼일회계법인 CEO
	최종구(76)	금융위원장
2018	허경수(75)	코스모 그룹 대표이사 회장
	최수규(79)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제4회 특별공로상 경영809	
2019	이선용(80)	베어트리파크 대표
	박정호(82)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김종양(81)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총재
2022	박정원(81)	두산그룹 회장
	최원목(79)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제5회 특별공로상 송공석(05) 와토스코리아(주) 대표이사 특별상 KUBS Ladies	
2023	추경호(79)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정의선(89)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재일(8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사장,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장







2025년 상반기 상임이사회 개최

2025년 상반기 상임이사회가 2월 20일(목) 오후 6시 역삼동 소재 파크루안에서 양정인(경영95) 사무국장 사회로 열렸다. 이날 상임이사회는 이동섭 교우회장이 2월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소 3월에 열리던 상임이사회를 한 달 앞당겨 진행했다.

이동섭(경영89) 교우회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선후배 교우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해 여러 행사들과 교우의 밤 행사가 성황리에 잘 치러졌고 선후배 교우님들이 행사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교우회가 많이 활성화 됐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지난해 교우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참석해주신 교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올해에도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며 올해 있을 교우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김언수(경영81) 경영대학장의 간단한 학사보고 이후에 기획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평국(경영89) 부회장의 운영보고가 있었다. 2년 동안 금요일에 진행해왔던 교우의 밤 행사를 올해는 기존에 진행해 왔었던 12월 첫 주, 목요일에 개최



할 것을 알렸다. 또한 홈페이지 개편, 노후 된 교우회 사무실 가구 교체, 교우회 굿즈(교우회 기획 물품) 제작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이날 상임이사회의 주요 안건은 △제10대 회장 선임의 건 △행사 참가비(힐링트레킹, 교우의 밤) 인상의 건 △회비(연회비, 평생회비) 인상의 건 △임원(부회장) 분담금 기준 제정의 건이 있었다.

첫 번째 안건인 제10대 회장 선임 관련하여 정진혁(경영04) 부회장의 추천 사에 이어 현재 이동섭 교우회장을 재추대하여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이동섭 교우회장이 이를 수락했다. 두 번째 안건인 행사 참가비(힐링트레킹, 교우의 밤) 인상은 힐링트레킹은 기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교우의 밤 참가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고 세 번째 안건인 회비(연회비, 평생회비) 인상은 일반회원 연회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평생회비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네 번째 임원(부회장) 분담금 기준 제정은 차등적으로 납부해 오던 부회장 분담금을 조정하고 부회장단을 확대하여 부족분을 채우기로 결정했다.

회의를 마치고 만찬으로 이어졌다. 이동섭 교우회장과 김언수 경영대학장의 건배제의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경영대 교우회의 발전과 올해 활동을 기대하며 행사를 마쳤다.



2025년도 제118회 학위수여식 개최



고려대는 2월 25일(금) 오전 10시 고려대 인촌기념관 대강당에서 제118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학부 3,856명, 대학원 2,453명 등 총 6,309명이 학위를 받았다.

김동원 총장은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세상은 기후변화, 경제적 양극화, 식량 위기와 AI로 디지털 대전환 등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변화시키며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지만 숏한 위기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번영해 왔으며 한민족 역시 근대사의 시련 속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일궈왔다. 여러분도 강인한 정신과 굳건한 단결로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이다”라며 “첫 번째는 ‘Back to basic’. 여러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때 기본으로 돌아가 어려움에 대처하라. 둘째로 지식이 아닌 학습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셋째로 호연지기의 강한 의지와 용기로 끈질기게 도전하며 세상에 맞서라”라고 말했다.

승명호 교우회장은 “모교가 배출한 훌륭한 선배들처럼 여러분들은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지구촌 그 어느 곳에서도 역경을 헤치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힘들더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갈수록 길이 좁고 험난해진다. 반면에 경쟁이 치열하고 뚫기 어려운 좁은 문을 통과하면 갈수록 탄탄대로가 펼쳐진다는 것이 선배들의 공통된 경험이다”라며 “강인한 결속력을 자랑하는 고대 교우회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힘들더라도 고대인다운 지성과 야성, 세련된 감성으로 여러분들이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교우회가 응원하겠다”라고 격려했다.

경영대학은 이날 오후에 ‘제118회 경영대학 학위수여식’을 인촌기념관에서 별도로 진행했다. 이동섭 경영대 교우회장은 “눈앞에 낮은 고지를 목표로 삼아라. 막연히 불안해하지 말고 작은 목표를 성

취하다 보면 새로운 기회가 보일 것이다. 열심히 배우고 도전하고 일을 완결하는 근성을 키워라.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라. 실패하더라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폭넓은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계획하면 더 큰 실패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라. 혼자만의 힘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또한 자신만 위하는 것이 아닌 주변을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김언수 학장은 “Curiosity, 호기심을 갖고 항상 질문해라. 계속 배우고 공부해라. Collaboration, 협업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자신을 단련하기 바란다. 백그라운드, 인종, 언어, 문화가 다른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도 협업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딜 가도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Contribution, 사회 공헌하는 사람이 되라. 나 혼자만 위하는 사람이 아닌 나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라고 조언했다. 또한 김언수 학장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지내온 공간과 장학금 등은 교우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영대학과 교우회에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UCK파트너스에서 근무하는 신선화(경영95) 교우의 축하도 있었다. 신선화 교우는 “여러분들 앞날에도 즐거운 날도 있지만, 힘든 날도 많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실패와 좌절은 여러분들을 바닥까지 끌어내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실패를 만날 때, 짧고 굵게만 좌절해라. 마찬가지로 성공했을 때도 짧고 굵게 스스로를 축하해라. 인생에서 마주칠 좌절과 실패를 현명하고 멋지게 잘 활용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경영대학 학위수여자는 학사 전·후기 통합 450명, 석사 84명, 박사 전·후기 통합 8명, MBA 308명 총 850명이다.





김 언 수 경영 81 ■ ■ ■

경영대학(원)장 인터뷰

1. 2024년 9월 1일 경영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신 이후로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든 조직에는 그 조직이 유지되기 위해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이 있고, 조직이 한단계 발전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경영대는 규모도 크고 정말 다양한 일이 많습니다. 첫 학기는 완전히 새로운 일보다는 전임 학장단에게서 물려받은 일들을 완료하거나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제 3학기가 남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학기인 올 한해 동안 앞으로 나가는 액션을 취해야 하겠습니다.

2. 학장님께서는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그 당시의 대부분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성실한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1980년대는 여러모로 불안정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고도 성장기에 있었던 시기였으니까, 취업에 큰 걱정을 하지는 않을 때였습니다. 시위도 빈번했고, 아무래도 학업이 현 재보다는 힘들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느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부도 당연히 지금처럼 치열 하게 하지 않았습니 다.

저 역시 술도 많이 마셨고,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라 면 일단 강의는 절대 빠지지 않았고, 시험 기간 일주일 전부터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게 차 이를 만든 것 같습니다. 경영대 수석졸업을 했으니까요. 지금 현대자동차경영관에 있는 '경영대 학 역사관'에 가면 인사관리와 재무관리 공책이 있는데, 그 공책이 제가 쓴 강의 노트입니다. 친 구들이 전부 시험 때 되면 복사하고 봤는데, 우스갯소리로 “김언수 노트만 봐도 B는 맞는다”라 고 했었죠.

3. 전략 경영을 전공하셨는데 임기동안 학장님의 전공을 살려서 어떠한 비전과 목표로 경영대학을 운영하실 예정인가요?

학장이 되기 전 몇 년 전부터, 주니어 교수님들을 만날 때마다 “앞으로 5년 혹은 10년 사 이 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니까 준비를 하라”고 말했었죠. 왜냐하면 학령인구 감소, 대학 내외의 경쟁 심화, 인공지능(AI) 등의 발달로 인해 대학 교육과 학위의 가치, 교수의 정체성 등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학교 브랜드가 중심이었는데,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SKY'라는 브랜드로 유지를 해오던 상황이 계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략 관점에서 바라보면 똑같은 것을 경쟁자보다 더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서열구도를 바 꾸기 힘듭니다. 1위는 자원이 많으니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고, 서로 열심히 해본들 거기서 거기 앞 서거니 뒤서거니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의 답은 ‘다른 걸 해서 잘하 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Doing Better by Being Different’라는 표현이 되겠죠. SKY 경 쟁에서 우리가 자타공인 1위가 된다 한들 사람들이 크사이(KSY)라고 불러줄 것 같지도 않습니 다. 뛰어난 라이벌들과 경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로가 발전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제는 서로 같은 방식으로 경쟁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는 무언가 다르구나”, “고대생들은 다르다”라는 정체성을 만들어야겠죠.

구체적으로 '3C, 4Tech'를 고대 경영대의 대표 시그니처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최대한 심 플하고 발음도 쉽게 일부러 복수형태를 쓰지 않고 띄어쓰기도 하지 않고 “쓰리씨, 포테크”라고 표현해 봅니다. '3가지 C를 바탕으로 4가지 테크를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인재,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소화하여 엔지니어와 전문가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고, 그들을 리드할 수도 있는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제 임기 동안은 4가지 테크 비 즈니스를 정했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 어떤 비즈니스를 강조할 것인가는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지만 얼마나 정교하게 실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학생들은 이미 알아서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었습니다. 학교가 더욱 체계적인 환경을 마련할 뿐입니다.

3C의 첫 번째 C는 호기심(Curiosity)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호기심을 잃게 만들고, 답을 빨리 찾는 훈련을 주로 해왔습니다. 세상은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려면 어떤 답을 하는지 보

면 알 수 있고, 사람이 얼마나 현명한지 알려면 어떤 질문을 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려면 아는 것이 있어야겠죠. 되도록 4Tech 영역에서 학생들이 많이 배우고 많은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 C는 협업능력(Collaboration)입니다. 백그라운드가 완전히 다른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협업하고 화합하고 리드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내에서 경영대학은 타 단과대학과 협업해야 합니다. 예컨대, 인공지능(AI)에 대한 이해를 경영학에 접목하려면 경영대학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공대는 물론 문과대에서도 AI를 공부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학교 안에서 자원을 찾고, 자원이 없으면 외부의 회사, 프리랜서들과도 협업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분명히 인간과 AI가 장착된 기계가 나란히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협업능력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C는 공헌(Contribution)입니다. 우리 경영대학의 미션이 'Business for Society'잖아요. 이것은 경영대학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던 정신입니다. 이를 좀 더 명시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우고 그런 교육과 연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Tech'입니다. 첫 번째 Tech는 AI입니다. 사람들이 인공지능도 유행처럼 빠르게 사라질까 걱정하는데, 이제 인공지능은 현실로 다가온 지 오래됐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상황을 반영해서 경영학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Tech는, 반도체입니다. 방대한 반도체 전체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구동하는 반도체 위주로 배우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픽에 특화되었던 엔비디아의 GPU가 AI에 활용되면서 회사가 엄청난 성장을 한 것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Tech는 로봇틱스입니다. AI가 궁극적으로 응용되는 많은 영역 중에 로봇틱스를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상 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보는 새로운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로봇들이 이미 현장에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마지막 네 번째 Tech는 바로 에너지인데요. 인공지능의 발달은 곧 막대한 에너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필요한 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저장하는 기술도 중요하고, 발전된 전기를 최대

한 새로운 인프라 없이도 전송할 수 있는 기술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3C 4Tech이 향후 전략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4.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3C, 4Tech 요소들을 커리큘럼에도 녹이고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연구 프로젝트들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미 Global MBA와 대학원 BA(Business Analytics) 과정에서 일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캡스톤 클래스 등은 실제 기업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들이 해결하고 싶은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더 확대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 몇 년 전부터 학부 수업 팀 프로젝트를 반도체 사업으로 지정해서 수행하게 했습니다.

지난 학기 MBA 수업에서도 반도체와 AI 관련 사례들을 다뤘습니다. 편을 나눠서 특정 AI 관련 회사를 배정하고 왜 자신의 회사가 경쟁에서 이길 수 밖에 없는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등을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게 하는 전략배틀도 수행했습니다. 경영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엔지니어처럼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그들과 대화가 되고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규과목을 개설하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이크로 디그리나 비학위 과정 등 신속하게 실험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5. 경영대학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학 환경의 전반적인 위기상황과 경쟁심화 등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고대 경영대가 한국을 넘어 글로벌 스케일로 학생들(전통적인 학부, 대학원은 물론 평생교육 개념으로 다양한 연령과 프로파일의 학생들)의 선택을 받는 학교가 되기 위해 3C 4Tech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실행되어 성과가 나려면 우수한 교수자원이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하고 교수들이 탁월한 강의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받쳐줄 뛰어난 역량의 직원 선생님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재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6.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드웨어적인 교육여건은 상당부분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환경을 선배님들이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움직이지 않고 서있는 건물이나 강의실을 넘어서 경영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적으로 3C 4Tech를 향하여 작동하게 했으면 합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다양한 전공의 교내외 학생들이 회사 등 외부자들과도 한자리에서 4Tech 영역에서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3C를 체득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칭 “3C 4Tech Trading Zone”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트레이딩 존은 물론 경영대 전체에 예술적인 요소를 더 많이 더하고 싶습니다. 그런 환경이 마련되면 학생들은 사고도 더 유연해지고 더 많은 협업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을 촉발하도록 “예술 + 테크 + 멀티미디어” 공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7. 학생들과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난 학기부터 학생회와 소통하면서 작은 변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영대 건물들 안에 학생들이 쉴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이 논의하여 그동안 트래픽이 뜸하던 현차관 1층 오픈 시어터 자리와 3층과 4층을 연결하는 플로팅 플로어 상단과 하단 끝에 소파 등 쉴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경영대 건물들 내외부의 공간 활용을 의논하여 변화시킬 계획이고 120주년과 관련된 활동들에도 학생들을 이미 관여시키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취업과 관련된 회사들 자료를 학생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AI챗봇을 개발하고 있던 학생들이 찾아와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이미 성과를 내고 있고, 120주년 기념 화보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들도 AI를 활용하여 자료를 만드는 성과도 내었습니다. 봄학기 시작하자마자 학생회 복지시설국장의 요청으로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8. 올해로 고려대학교 개교 120주년이자 경영대학 120주년입니다. 120주년의 의미와 경영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왜 120주년을 기념하는가, 100주년도 아니고”라는 반응이 가끔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60갑자가 두 번 돌아간다는 의미 외에도 고대의 역사를 보시면 60년 주기로 독립, 민주화,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고대의 역할이 변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영대학 120주년 기념사업의 슬로건은, 학교 전체 슬로건에 맞추어 「KUBS, Spearheading Next Intelligence」로 세우고자 합니다. 120주년 사업 준비위원회가 지난 가을학기 동안 가동되어 올 한해 최소한 3개 정도의 행사를 준비중입니다. 지난 120년을 돌아보는 행사와 앞으로의 120년을 이끌어갈 경영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이벤트들입니다. 한국 경영학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경영학의 120년을 정리하는 책자도 출간될 것이고, 눈으로 보는 화보집도 출간된 것입니다. 이번 120주년 기념사업들은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될 대학을 넘어서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대학으로 발전을 계획하는 도약의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9. 경영대 교수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고려대학교와 경영대학은 ‘교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교우(交友)라는 용어는 고려대학교만 쓰잖아요. 오늘의 경영대가 있기까지 수많은 교우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경영대 건물 안에 있는 기부자들의 면면과 수많은 장학금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학생들이 교우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큰 역할을 하는지 이해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받은 만큼 교우가 되었을 때 후배들에게도 베푸는 경영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교우가 되니까 ‘나’와 관계없는 조직이 아닌, 상당히 중요한 조직이라는 점을 알면서 교우회에 활발히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교우회비도 열심히 납부하시고요. 이번 졸업식에서도 같은 내용의 축사를 했었습니다.

교우들께서 지속적인 도움을 주시면, 경영대학은 교우들에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나왔다”라고 말하면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인정해 주고 한 수 접어주는, “고대 경영은 확실히 차원이 달라”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진그룹, 2025년 경영목표달성 Workshop 진행

일진그룹은 2024년 12월 19일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2025년 경영목표달성 Workshop을 진행하였다. 이번 Workshop에는 김언수 고려대 경영대학 학장과 일진그룹 이동섭 회장 이하 국내외 181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김언수 학장은 “2025년 개교 120주년을 맞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발전에 일진그룹이 함께 해왔다. 일진그룹의 창업자인 고(故) 이상일 회장님과 일진그룹 이동섭 회장 모두 고려대 경영대학을 졸업한 교우로서 경영대학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일진그룹이 더욱 도약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길 지원하며, 경영대학이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환영 인사를 했다.

이동섭 회장은 “이번 일진그룹 Workshop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신 고려대학교에 감사드린다. 올해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따라 더욱더 어려운 경제 상황이 예상되지만, ‘Innovation, Teamwork, Make it happen’이라는 일진 정신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룹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진행된 Workshop은 ‘자동차 산업 전망 및 일진그룹 대응전략’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시작으로 일진그룹 내부강사 강의, 각 부문별 목표와 각오 발표, 이동섭 회장의 강의 총평 순으로 진행됐다. 일진그룹 임직원들은 2025년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Workshop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참여했으며, LG-POSCO 경영관 안영일홀에서 진행된 석식 만찬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기사제공 · 일진그룹



■ 교우동정



구자열 (경영72)

2025년 2월 28일
구자열 고려대학교
발전위원장이 예술의전당
이사장에 취임했다.



승명호 (무역74)

2025년 3월 27일
승명호 교우회장이
고려대학교 교우회 제35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두 번째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강형모 (경영76)

2025년 1월 23일
강형모 교우가
제21대 대한골프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최중구 (무역76)

2024년 12월 27일
최중구 교우가 대한민국
정부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됐다.



정몽규 (경영80)

2025년 2월 26일
정몽규 교우가 제55대
대한건축협회장에
당선되어 4연임에 성공했다.



이병호 (경영82)

2024년 11월 15일
이병호 교우가
산은캐피탈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임영문 (경영82)

2024년 11월 12일
임영문 교우가
한일시멘트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진성원 (경영82)

2025년 1월 2일
진성원 교우가
우리카드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최준영 (경영82)

2024년 11월 15일
최준영 교우가
기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전광현 (경영83)

2025년 2월 17일
전광현 교우가
제뉴원사이언스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노충식 (경영84)

2025년 2월 17일
노충식 교우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로 취임했다.



김용석 (무역85)

2024년 12월 13일
김용석 교우가
하나캐피탈 대표이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현준우 (경영85)

2025년 3월 27일
아이스크림미디어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황종연 (경영85)

2024년 12월 4일
황종연 교우가
농협금융지주
부사장에 선임됐다.



구본삼 (경영86)

2024년 11월 28일
구본삼 교우가
자이S&D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김성일 (경영86)

2024년 10월 31일
김성일 교우가
현대퓨처넷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선임됐다.



정병섭 (경영86)

2025년 1월 16일
정병섭 교우가
에어부산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손현호 (경영88)

2024년 12월 5일
손현호 교우가
SK디스커버리 사장으로
선임됐다.



이승조 (경영88)

2024년 12월 10일
이승조 교우가
현대자동차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김정택 (경영89)

2025년 1월 1일
김정택 교우가
KBS 강릉방송국장에
선임됐다.



김희문 (경영90)

2025년 1월 23일
김희문 교우가
한국증권금융 상무로
선임됐다.

교우동정



이법진 (경영95)

2025년 1월 20일
이법진 교수가
국세청 인사기획과장으로
승진했다.



윤승현 (경영96)

2025년 2월 25일
윤승현 교수가
웅진씽크빅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교수동정



신호정 (무역86)

신호정 교수가
고대신문사
주간으로
임명됐다.



이동원

이동원 교수가
한국경영정보학회
(KMS) 제33대
회장에 취임했다.



문정빈

문정빈 교수가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장으로
임명됐다.



전재욱 (경영92)

전재욱 교수가
고려대학교
대외협력처장으로
임명됐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장덕윤(경영79) 2024년 11월 23일 아들 경수 군
홍석준(경영13) 2025년 6월 14일 본인 결혼

강예슬(경영14) 2024년 12월 7일 본인 결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영식(상55) 2024년 9월 1일 본인상
손명관(상56) 2025년 1월 30일 본인상
민정식(경영56) 본인상
박웅상(경영56) 2024년 12월 7일 본인상
박명노(상60) 2025년 1월 19일 본인상
양효준(경영60) 2024년 11월 22일 본인상
이용신(경영61) 2025년 1월 18일 본인상
김세영(경영62) 2024년 6월 7일 본인상
김승남(경영60) 2024년 7월 25일 본인상
박채길(경영64) 2025년 3월 7일 빙모상
허창수(경영67), 허정수(경영69), 허진수(경영72)
2024년 12월 3일 모친상
김영호(경영69) 2024년 12월 26일 부인상
전봉진(경영76) 2024년 12월 31일 모친상
이만득(경영77) 2024년 11월 5일 모친상
김상구(경영78) 2025년 3월 7일 모친상
황중서(무역78) 2025년 2월 5일 본인상

김상해(경영79) 2025년 1월 5일 빙부상
원상희(경영79) 2024년 12월 23일 모친상
이상현(경영79) 2024년 12월 20일 모친상
이성훈(경영79) 2025년 3월 7일 빙모상
김병직(경영81) 2025년 2월 11일 모친상
김신철(경영81) 2025년 3월 26일 빙모상
박상원(경영81) 2024년 12월 11일 빙모상
송재현(경영81) 2025년 2월 24일 모친상
조용현(경영81) 2025년 2월 18일 모친상
황승하(경영81) 2025년 2월 5일 빙모상
원규식(경영86) 2025년 1월 20일 모친상
강동일(경영89) 2025년 3월 23일 본인상
전진수(경영89) 2024년 12월 28일 빙부상
조윤기(경영89) 2025년 2월 12일 빙부상
황수진(경영89) 2025년 3월 26일 빙모상
김현수(경영93) 2025년 3월 16일 시부상
정현숙(경영97) 2024년 11월 17일 모친상



사우디아라비아 알하사 포럼 참가기

천영석 (경영00) 트위니 대표이사 / 경영대학 교우회 부회장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알하사에서 열린 알하사 포럼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트위니의 해외 진출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었으며, 특히 중동 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준비해오던 터라, 상대적으로 덜 익숙했던 중동 시장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출장에는 이화자산운용의 김영일(경영97) 선배님의 큰 도움이 있었습니다. 포럼을 통해 현지 기업인들과 교류하며 트위니의 기술과 비전을 소개할 수 있었고, 사우디 경제 및 산업 구조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특히 교우회를 통해 이러한 비즈니스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점이 더욱 뜻깊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배움을 나눈 선배 교우님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서로를 돕고 연결해주는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사우디에서 받은 첫인상은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고 석유산업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었지만, 동시에 이러한 환경이 혁신을 위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사우디 정부가 추진하는 비전 2030은 산업 다각화와 첨단기술 도입을 가속화하며,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는 기술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트위니의 자율주행 물류로봇이 현지 물류 환경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지 고민하며, 가능성을 구체화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우디에서 만난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열린 태도를 보였으며, 예상보다 높은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어 원활한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정중하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글로벌 시장을 향한 진취적인 마인드를 엿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우디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시장임을 체감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흥미로운 경험이 많았습니다. 사우디의 음식은 향신료가 강한 요리가 많았는데, 특히 양고기와 쌀로 만든 카브사(Kabsa), 그리고 대추야자로 만든 디저트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입에 잘 맞았고, 사우디 사람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그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직접 체감했습니다. 거리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들도 종종 보았고, 비즈니스 행사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들었던 것보다 훨씬 개방적인 분위기였고, 변화하는 사우디의 모습을 가까이서 경험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 중 하나는 FAKRH GROUP과의 MOU 체결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트위니는 사우디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현지 기업과 협력하여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진그룹, ‘일진연구센터기금’ 30억 쾌척 공과대학 일진연구센터 출범 예정



일진그룹(회장=이동섭/경영대학 교우회장)이 공과대학 내에 들어설 ‘일진연구센터’ 후원사업 기금으로 30억 원을 쾌척했다. 고려대는 11월 19일(화) 오후 2시 본관 제1회의실에서 ‘고려대-일진, 일진연구센터 후원사업 기부 협약식’을 가졌다.

선대 회장이신 고(故) 이상일 회장 때부터 의료원 기금, 경영대학 기금 등 꾸준히 고려대에 도움을 준 일진그룹은 이번에 공과대학 내에 들어설 ‘일진연구센터’에 30억 원을 후원하며 고려대와 산학협력을 맺게 됐다.

공과대학 내에 들어설 ‘일진연구센터’를 통해 고려대와 일진그룹은 기계공학, AI 등 전기·전자 분야의 과제를 구성, 산학협력 활성화 및 인재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기부 협약식에서 일진그룹 이동섭 회장은 “산학협력을 통한 모교 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협약식에 참석했다. 일진연구센터 후원사업이 고려대에, 특히 공과대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협력으로 고려대와 일진그룹이 윈-윈 하여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 11월 21일자 커뮤니케이션팀 기사 발췌

유상옥 회장, 1994년부터 30년간 꾸준한 기부 고려대에 소장품 기증



유상옥(상55) (주)코리아나 화장품 회장이 1994년부터 30년간 꾸준히 기부하며 남다른 모교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고려대는 2024년 11월 6일(수) 오후 4시 본관 총장실에서 ‘유상옥 (주)코리아나 화장품 회장, 장학기금 및 유물 기부식’을 가졌다.

유상옥 회장은 1994년 100주년 기념관 건립기금을 시작으로 리모델링 기금, 프로그램 운영 기금 등 30년간 다양한 방면에서 고려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교우회 장학금, 저소득층 해외 교환학생 장학금 등 지금까지도 꾸준히 장학금을 기부하며 고려대 후배들의 학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문화경영에도 관심이 큰 유상옥 회장은 고려대에 명기, 토기와 같은 소장품을 114점 기증하며 고려대 박물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2003년 코리아나 화장품박물관과 코리아나 미술관을 결합한 ‘스페이스 씨’를 설립한 유상옥 회장은 개인 소장 유물을 국립중앙박물관, 모교 덕수상고 등 다양한 곳에 기증하기도 했으며 그 공을 인정받아 2022년에는 보관 문화훈장을 수훈했다. 2024년 11월 7일자 커뮤니케이션팀 기사 발췌

강완모 미국 변호사 기부 푸른 솔 사회정의 장학기금 1.2억 원



강완모(경영75) 미국 변호사가 고려대 후배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푸른 솔 사회정의 장학기금'을 만들어 기부했다. 고려대는 11월 7일(목) 오후 3시 본관 총장실에서 '강완모 변호사, 푸른 솔 사회정의 장학기금 기부식'을 가졌다.

2025학년도에 신설되는 '푸른 솔 사회정의 장학기금'은 장

학생 2명을 선발하여 졸업까지 매 학기 3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강완모 변호사와 그의 부인 김난원 씨는 각자도생의 현 사회 분위기를 넘어 어떤 사회를 만들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고, 고려대 후배들을 돕기 위해 이와 같은 장학기금을 신설했다.

강완모 변호사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강완모 변호사는 미국에서 6년간 고려대 국제재단 이사장으로 봉사했고, 현대자동차경영관 건립기금, SK미래관 기금, 과학도서관 발전기금, KUPC(KU Pride Club) 기금을 통해 후배들의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는 등 여러 기금 모금에 동참하며 꾸준히 모교의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힘써 주고 있다. 이에 고려대는 SK미래관과 과학도서관 리노베이션에 강완모 캐럴과 강완모 아이디어룸을 조성했다.

2024년 11월 8일자 커뮤니케이션팀 기사 발췌

누적 94억 원 고려대에 기부한 유휘성 교우 추가 10억 기부



유휘성(상58) 교우가 또다시 10억 원을 기부했다. 2024년 11월 19일(화) 오전 11시 본관 총장실에서 '경영대학 인성기금 기부식'을 가졌다.

경영대학 인성기금은 경영대학 교원의 연구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유휘성 교우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성함에

들어있는 '仁'자와 기부자 성함의 '星'자를 따 '인성(仁星)'이라 명명했다. 유휘성 교우가 그간 전달한 기부금은 인성장학기금, 인성연구기금, 인성연구상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2011년 모교인 고려대에 신경영관 건립기금 10억 원을 기부한 유휘성 교우는 몇 년이 지나 2015년에도 고려대를 찾아 10억 원 수표를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2017년에는 자녀들을 키운 추억이 어린 서초구의 155m²(약 50평, 당시 매매가 24억) 아파트를 기증,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10억 원씩 기부했고, 2022년 새해와 작년 5월 10억을 추가 기부하며 '85세 기부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유 교우는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8월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24년 11월 20일자 커뮤니케이션팀 기사 발췌



다우리치플러스

신준식

대표이사

경영 73

Q1. 교우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73학번 신준식입니다. 저는 1978년 2월에 모교를 졸업하고 삼성물산(주) 건설부문에서 근무하다가 대기업 생활에 회의를 느껴 사직 후 창업하여 전문건설업을 28년 간 경영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때는 특별한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우리치플러스는 2006년에 창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Q2. 이번에 10억을 교우장학회에 기부하셨는데 큰 금액을 기부하신 계기를 말씀해주세요.

가지게 된 재산을 고스란히 대물림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사회 환원으로 사회에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이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Q3.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려대학교 교우회에는 3개의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저는 장학위원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고 이번에 기부한 재단법인 고려대학교 교우장학회에서도 10년 가까이 이사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교우회 학술상' 시상금으로 운용되어 우수한 연구 실적을

2025년 1학기 미래인재 장학증서 수여식

일시: 2025년 2월 28일(금)

장소: 교우회관 안암홀



이룩한 모교 교수들에게 지급됩니다. 연초에 개최되는 고려대학교 교우회 신년인사회 때 시상식을 진행하면서 시상금이 전달되죠. 또한 교우회 장학재단의 결정에 따라 모교 인재 양성을 위해 쓰여지게 됩니다.

Q4. 모교 등에 기부하시는 것은 계속하신 일인가요?

오래전부터 꾸준히 개인 명의로 모교 재학생에 대한 교우회 장학금을 위한 기부는 계속해왔고 KU PRIDE CLUB에는 발족할 때부터 소액이지만 매달 꾸준히 기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기부는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 장학재단과 모교 출신 교우로 구성된 고려라이온스클럽이 생각나네요.

Q5. 이번에 기부하신다고 결정하셨을 때 가족들의 반응이 어떠셨나요?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금액 등 확실한 것은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결행했어요. 기부를 한 후 알렸을 때 기부식에 가족들 안부르냐고 할 정도로 긍정적으로 반응해줘서 고마웠어요. 작은딸이 예전에 장학금을 받은 적 있는데 제가 릴레이성으로 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한 적도 있었죠. 살아오면서 제가 가족들에게만 쓰고 물려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서 이번 기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Q6 기부와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재작년쯤 한 선배님께서 기부하실 때 하신 말씀이 고대 교우회보에 기사로 나왔어요. '공수래 공수거'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말은 평범하게 많이 듣는 말이지만 '수익에는 호주머니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실감이 나더라고요. 몰랐던 말은 아니고 저의 기부 의사나 방향성에 영향을 끼친건 아니지만 그 말씀에 대한 여운이 많이 남습니다. 기부를 원래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해서인지 다른 분들 또는 교우분들이 상황이 어려운데도 힘들게 번 돈을 모아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기부하시는 모습을 볼 때 기부하시는 분의 마음이 공감되고 부러운 마음을 느꼈고요. 장학금으로 연결된 학생들과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직전에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이 졸업하고 이번에 로스쿨로 진학했는데 그동안에도 성의있게 자기 근황을 전하고 가끔 재학 중인 장학생과 식사 자리도 함께할 때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기부도 하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Q7. 세계 최저인 우리나라 저출산을 걱정하셔서 '출산치하장려금'을 주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2019년 기준 세계은행보고서에서 이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199개국 중 꼴찌였으며 2024년 OECD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장기적으로 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까지 표현되었습니다. 2024년에 0.03%가 올랐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6.25전쟁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죠. 고도의 경제성장을 거치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우수하고 풍부한 인적자원이 절대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땅이 넓은 것도 아니지만 한국인들은 똑똑하고 교육열도 뜨거웠기에 인적자원은 풍부했죠. 그런데 지금처럼 인구가 줄어들면 나라는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베트남에 처음 갔던 2010년경, 거리마다 오토바이를 탄 젊은이들이 눈에 띄게 많은 모습을 보면서 경제성장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많이 부러웠습니다. 한국은 이 상태로 인구가 줄어들면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꼈어요.

2024년 초 신문 기사에 의하면 부영그룹의 이종근 회장이 출산하는 직원 자녀들에게 1억 원씩 총 70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보도된 적 있었고 다른 기업에서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출산한 직원들을 지원하는 규정이 생기는 나비효과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나아가 2024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직원 자녀가 태어나서 회사에서 지원금을 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게끔 소득세법까지 개정되는 큰 반향이 있었지요.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다가 가까운 사람들인 고등학교 동기들 720명부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73학번 동기들까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직계비속이 태어나면 부모 기준으로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에 따라 체증하여 ‘출산치하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치하’는 ‘낳느라 수고했다’, ‘장려’는 ‘더 낳아라’라는 의미입니다.

Q8. 이번에 73학번 동기회장을 맡으셨는데 동기회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다른 학과에 비해 경영학과는 정원이 많아서 큰 모임을 여러 번 갖기 쉽지 않습니다. 원래는 1년에 한 번 연초에 신년인사회 정도만 했었는데 이번에 동기회장직을 맡으면서 가을 야유회를 기획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부터 당구, 등산 등 취미로 모이는 소모임은 있었어요. 그런데 취미를 가진 사람들만 모이는 것보다는 테마나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경영학과 73학번이라는 공통분모로 모이는 소모임을 더 조직하고 활성화해서 정착시키려는 마음입니다. 모임이 조직되면 회장으로서 참석하고 소모임 지원도 확대해서 참여 인원을 늘려보려고 합니다.

Q9.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가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이의 청년상



春崗 황인강
상61·수필가

20세 전후의 젊은이는 가정에서 든든한 기대와 관심의 대상이 된다. 어렸을 때의 사진을 보노라면 귀여운 ‘애기들’ 모습이 어느 사이에 자라 대학생이 되어간다. 수능에 대비해 긴 터널을 지내고 있는 손녀도 있다. 남자아이는 청년이 되어 군에 입대한다.

어른들만 세월이 빠른 것으로 알았는데 어린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청소년 시절을 맞는 것 같다. 부모들은 나이를 먹어감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가정부양의 부담을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달려간다. 아이들은 입학하여 여러 해를 지나면서 새로운 학년, 친구, 새 반, 옆 친구 등이 바뀌어 흥분 속에 마음과 몸이 부쩍부쩍 자라 세월 가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어느새 중·고등학교 과정이 팽이 돌아가듯 지나간다. 언제 그 세월이 지났는지조차 깨닫지도 못한 채 어느 날 아이들을 쳐다보니 대학생이 되어 있고 둘째가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현실이다.

남자아이는 군대에 갈 나이가 될경 다가와 고민하게 된다. 어린것들이 부지런히 자라 학년이 올라감과 동시에 신체적으로 성년이 되어간다. 그 순간 청년의 벽에 부딪치는 나이가 되었다. 배우며 자라

는 성장기에 진입해 학업을 통한 지식과 정서의 발전을 도모한다. 책과 친구, 학우들과 어울려 사회성을 습득하는 과정이 이때부터 중요하지 않겠는가. 좋은 친구를 찾고 성장기에 좋은 감성과 대인관계를 습득하게 되면서 인생의 기반을 다지는 중대한 시기가 되지 싶다. 역시 학생시절에 친구와 선생님의 지도로 장점을 발견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도 선택하게 되기도 한다.

부모와 친구를 잘못 만나 청소년 시절을 잘못 보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들의 일생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 선배를 만나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손자 하나 손녀 한 명과 외손녀 두 명이 있다. 여자아이들은 대학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있고 남자아이는 군대복무중이다. 아직까지는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꿈을 키워가고 있다. 다만 아이들의 신앙생활이 적극적이지 않아 그것이 불만이라면 불만일까.

한 인격체의 성년 청년들의 사고 패턴의 균형을 잡아주는 곳이 교회 생활의 한 면이 아닐까싶다. 친





손자나 외손녀의 조부가 믿음 집안이어서 청년기를 맞이한 아이들에 대한 바람은 희망적이다. 친손주의 외가는 기독교 집안으로 할아버지가 2대에 걸쳐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한 이력의 가정이다. 외손녀의 할아버지도 감리교 대학인 대전의 목원대학교 수와 총장을 역임한 목사이다. 아이들의 부모, 조부모가 뿌리 깊은 교회에 일생을 바친 할아버지의 가훈을 외면하고 불성실한 생활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하지만 청년들이라 어느 때 어떤 실수를 저지를지 알 수가 없지 않은가. 지금의 젊은이는 엄격한 가정 교육을 받는 세대가 아니다. 유교 사상이 사라졌고 가정과 부모에 대한 자세도 우리 어른들과는 다르다. 상하의 관념이 희박하고 수평적인 사고가 일반적이지 않은가. 함께 어울리는 생활에 익숙하기보다 개인적인 사고와 행동하기를 원한다. 디지털 시대에서 자라고 지내는 그들은 개성 표현이 확고하다. 현실주의를 추구하고 모바일 중심의 일상을 선호한다. X, M 세대와 큰 차이가 있다.

모든 의사소통을 인터넷과 모바일로 해결하는 그

들이다. 우리와 다르다고 내버려 둘 수만은 없는 새로운 세대인 것을 인정하고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사고규범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는가. 몇 달 전, 한 젊은 군인의 희망적인 발언을 일간지 신문지 상에서 보았다. 작년 2월이었던가, 대통령이 김포 해병 부대를 방문했다. 장병 간담회에서 한 병사가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는 뉴스다. 대학에서 공학을 공부 중인 스무 살 해병 장병이 해병에 지원한 이유가 ‘강한 해병대이기 때문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 청소년이 바라는 용맹함과 강한 훈련과 건강한 육체에 대한 희망을 한마디로 표시한 말이 아닌가. 젊은 세대가 나약하고 인생관과 세계관 등이 엷을 것이라는 일반인의 우려는 기우였으면 한다. 옛 현자가 말했다. ‘높이 올라 멀리 보라’는 유익한 인생 명언이 아닌가. 청년으로서 무한한 열망과 강인한 의지 불타는 열정을 마음에 새겨 꿈을 키우고 실력을 쌓아야 하지 않겠는가. 청년세대는 지식습득에 매진하며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젊은이로 서야 하리라.

누 님



박 찬 성
경 영 68 · 수필가

근자에 나는 예전 어릴 적 우리 본가에도 누님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좀 한가롭고도 열없는 상상에 한동안 젖었던 것 같다. 연유인즉 우연히 나의 손에 잡힌 두 권의 책, 연암燕巖 박지원과 중국의 린위탕林語堂의 저작에는 서로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이 똑같이 어린 시절의 누님을 회상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한 시골 소년의 오래전 사그라진 기억을 되살려 놓았던 것이다.

연암이 큰 누님을 잃고 떠나가는 상여를 보며 지은 글이다. 누님이 시집갈 때 떠나보내기 싫은 마음에 응석 부리던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아아! 누님이 시집가던 날 새벽에 몸단장하던 모습이 흡사 어제 일만 같구나. 나는 그때 겨우 여덟 살이라, 벌렁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면서 말을 더듬으며 점잔을 빼는 새신랑의 말투를 흉내내었다. 누님은 부끄러워하다가 그만 빗을 떨어뜨려 내 이마를 때렸다. 나는 화가나서 울음을 터뜨리고 분가루에 먹을 뒤섞고 거울에 침을 뱉어 문질러댔다. 그러자 누님은 옥으로 만든 오리와 금으로 만든 별노리개를 꺼내 주면서 울음을 그치라고 나를 달랬다.” 전통적인 고문에 비해 격이 떨어지는 문장이란 이유로 조선 후기 임금 정조의 정책의 대상이 된 줄 알면서도 연암이 이런 소품문小品文 창작을 계속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처럼 진솔하고도 인간미 넘치는 글은 접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린위탕은 6남 3녀에 아버지가 목사였던 집안의 막내였다. 그의 엄부력에는 누님의 사랑에 대한 두둑한 신뢰감이 깔려 있다. “둘째 누나는 푹푹하지만

변덕스럽고 짓궂은 나를 사랑했다. 누나는 내가 어릴 때 정말 못되게 굴었다면서 한번은 누나와 말다툼을 하고는 분을 못 이겨 복수한답시고 뒷마당 흙탕물 구덩이에 드러누워서 돼지처럼 몸을 구르고는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자, 이제 누나가 이 옷 빨아!’” 일찍이 명저 <생활의 발견 The Importance of Living>에서 책상 머리맡에 성경책을 늘 비치해 두고 매일 읽는다고 밝히면서도 철저한 휴머니스트임을 자처했던 린위탕이 만년에 기독교인으로 귀의하는 ‘긴 우회로’를 따라가던 중 누님과의 일화를 엿듣게 된 것은 망외의 소득이었다.

근엄한 선비요 신사풍의 학자로만 알았던 연암과 린위탕의 심술궂은 응석은 무매칠남 無妹七男 집안의 막내로 하여금 부러운 마음을 약동하게 하였다. 어려서 내리사랑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 늘그막에 누님 타령을 하는 까닭은 결이 다른 누님의 사랑까지 탐하는 과욕에 있지 않다. 만약 일찍이 우리 집에 누님이 한 분이라도 있었더라면, 집안에 막혀 있던 언로言路에 물꼬가 터졌을 것이요 좀 더 화기가 도는 집이 되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만 되었더라면 어머니의 박명한 운세도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말하자면 꿈속을 거닐며 젖어 보는 희망적 사고 편향의 세계일 따름이다.

반듯하고 우애 있는 집안이라고 동네의 부러움을 샀지만 일곱 남아들이 한 지붕 아래 살면서 큰소리가 담을 넘지 않았다는 것은 꼭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 없을 것이다. 타고난 성품



탓도 없지야 않았지만 그건 아마도 장유유서라는 서열 의식 속에 조성된 경직된 분위기 탓도 크지 않았을까 싶다. 견고한 수직적 질서 속에 수평적 사고는 큰 소나무 그늘에 가려진 들꽃처럼 기를 펼 수 없었으리라. 소학교 시절 ‘토끼풀 사건’이 그나마 나의 기억에 남아 있는 유일한 형제간 분란이었다. 안마당에서 키우던 10여 마리의 토끼 먹잇감으로 클로버나 질경이, 아카시아 잎을 따오는 순번 문제를 놓고 다투었던 것 같다. 막내는 둘러앉은 어른들 앞에서 담배 피우는 흥내를 내며 재롱떠 기억은 있지만 응석을 펼 자리는 없었던 것 같다. 연암과 린위탕의 삽화에서 나는 그들의 응석 자체보다 그 버릇 없는 행동이 수용되는 가족간 높은 친밀도와 깊은 사랑의 교감이 흐르는 집안의 부드럽고 따사로운 공기를 상상해 보는 것이다.

사랑과 감사의 말은 대개 가정에서부터 익히지 않던가. 사랑의 마음은 이심전심으로 전해지는 것이요 가벼이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법도인 양 여기던 법가에서 자란 사람에겐 사랑의 언어가 낮간지럽게 느껴진다. 어느 여류 시인이 “가슴속 깊이 숨어 있던 그 귀한 말, 사랑의 말은 막상 입으로 뱉고 나면 웬지 씁쓸하다. 그러나 강한 힘을 지녔다”고 노래한 ‘말의 능력’을 선현들은 정말 몰랐던 걸까. 사랑과 감사의 표현에 인색한 세습된 나의 화법은 가끔 옆지기로부터 타박을 받기도 하지만 짐짓 과묵함으로 포장하는 버릇은 여태 버리지 못하고 있다. 헛헛이 애먼 과거를 돌아본다. 만약에 우리 집에 소통의 촉매자, 더 욕심을 보탠다면 사랑의

전령으로서 누님이 있었더라면, 필시 허짜래기 사랑의 언어일지라도 학습했을 터이요, 또한 적어도 도식적 관계가 좀 더 살가운 우애로 진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가당치도 않은 생각에 젖어보는 것이다.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니 정작 누님을 절실히 필요로 했던 사람은 어머니였던 것 같다. 공감력이 약한 남정네들 틈에서 아버지의 소실과 한 부역을 써야 했던 여성으로서, 어머니가 오롯이 홀로 감내해야 했던 신산한 삶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을까. 한껏 뉘두리를 받아 주고 때로는 나서서 역성들며 어머니를 업호해 줄 친구 같은 큰 누님이 있었더라면, 천 근의 무게로 휘어진 어머니의 허리가 조금이나마 펴지지 않았을까. 끄트머리의 대학 졸업을 목전에 두고 환갑 지경에 어머니는 속병으로 앞서가셨다. 늦가을 우람한 배추통을 이고 섰다가 힘에 겨워 툭 스러진 어머니는 좋은 것 죄다 뒷동아리에 주고 당신은 불품없이 왜소한 모습이 된 헌신의 배추 뿌리였다.

혹여 어머니에게 누님 대역으로서의 막내는 애초에 신기루였다. 대학 시절 주신 친필 서신 말미에 “너 혼자만 보고 치위라”라며 잠시 내비쳤던 속마음마저 번번이 다시 거두어들였던 어머니의 고독이 소소리 바람처럼 싸하게 나의 가슴을 스친다. 늘 혼자였던 어머니 곁을 큰 누님이 있어 든든히 지킬 수 있었더라면 어머니의 연수가 모르긴 해도 한 10년쯤은 늘지 않았을까 하는 회한이 오늘도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다.

종달새가 지지배배

김 진 하
상66·시인

귀룽나무 가지에서 종달새가 지지배배

산과 들 어디서나
향그러운 풀 냄새가 코를 찌른다

갓 피어난 신록이
산들산들 춤을 춘다

하늘엔
흰구름이 기러기처럼
떼를 지어 흘러간다

구름사이로 햇빛이 따스하게
쏟아져 내린다

앞산 아지랑이가 아롱아롱하고
노란 개나리꽃에 흰 나비 한 쌍이
사뿐이 앉는다.

아! 봄이구나.



56 회장 이연상 / 부회장 변동수

경영56동기회 정기총회(회장: 이연상) ●●●

매년 마지막 수요일에 개최하던 정기총회를 2024년에는 마지막 수요일이 성탄절 휴일이 되어서 한 주 앞당겨 12월 18일 약수동 맛집 춘천 막국수 집에서 개최했다. 열성적으로 참여하던 교우들이 매년 수명씩 타게해서 참석 인원이 올해는 몇 명이나 될까 우려했는데 다행히 지난해보다 한 명만 줄어든 12명이 참석해서 동기 간 우의 증진을 하며 무난히 총회를 치를 수 있었다. 식순에 따라 경과보고 등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마쳤으나 올해도 임원개선은 이루지 못하고 14년간 연임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아마도 종신제가 되어가는 느낌이다. 지난 호상지에도 밝혔지만 그동안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유창진, 민정식 동기가 기증에 타게했고 지난 정기총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했던 손명관 동기가 올해 1월 30일에 갑자기 유명을 달리했다는 비보를 접했고 또 오래전 미국으로 이민 간 박웅상 동기가 타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공교롭게도 인원도 적은 경영학과에서만 3명이 떠났다. 올해도 동기회 연회비를 받지 않고 찬조금으로 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24년에도 찬조금을 쾌척해준 박종혁, 백공용, 오태환, 이연상, 이종순, 최종해, 최화득 동기 등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5년도 정기총회에도 참석 인원이 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는 동기들이 많이 있기를 기대한다.



정기총회

막수회 (경영56동기회 월례회) ●●●

지난해 11월 이후 올해 2월까지 4개월 중 12월은 정기총회가 있는 달이라 3회에 걸쳐 모임을 가졌는데 추운 날씨 탓인지 참석 인원이 세번 모임에 연인원 16명밖에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제 추운 겨울도 지나고 따뜻한 봄철에 들어섰으니 오는 3월 모임부터는 더 많은 동기들이 참석할 것을 기대한다. 모임에 참석하는 동기들에게는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으나 만 90을 넘기고 모임에 참석하는 동기 중 가장 연장자인 김행엽 동기의 열성적인 참여와 아직도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는 김 동기에게 특별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그러나 주변에는 안타깝게도 장기간 투병 생활을 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동기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 그들의 쾌유를 함께 빌어주기 바라며 올해 월례회에도 찬조금을 희사해준 오태환, 이종순 동기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다음 달 월례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막수회

61 회장 이경순 / 총무 이채영

동기회 송년회 개최 ●●●

2024년 12월 20일 12시 7호선 논현역 인근 '삼양만나(전 취영루)'에서 날씨 관계로 예년에 비해 10여 명이 적은 35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열어 7개월 만에 만나는 동기들은 오랜만에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인경, 이부자, 박청자, 김군자 등 4명의 여동기들이 참석해 경영학과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복성 동기의 외손자가 수능 전국 1등을 달성하



송년회 개최



고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된 것을 모든 회원들이 축하했고, 이날 오찬을 이복성 동기가 기꺼이 찬조하여 모두의 박수를 받았다. 고령으로 몸이 불편한 회원들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해지고, 100세 시대의 핵심 징검다리인 '85세 고개'를 무난히 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초암회(서초동 모임) ●●●

서초동 지역 동기들이 지하철 3호선, 9호선의 양재역 인근 '산들해'에서 홀수달 셋째 화요일에 금년도 회장 정의철 외에 김성희, 박성현, 성규진, 성영일, 안희민, 양재광, 이복성, 전춘옥, 정기성, 조일규, 채규학, 최창규, 홍대우 등 15명이 만나고 있다. 1월 모임에는 회장 초청으로 재무 김윤장, 총무 이채영이 자리를 함께했다. 연초에 연회비를 건여 오찬 비용을 충당하고 있으며 11월 19일, 1월 21일 모임에 이어 다음 모임은 3월 18일에 같은 장소에서 가질 예정이다.



초암회

도암회(여의도 모임) ●●●

졸업후 여의도에 직장을 가졌던 동기들이 동기회에서 유일하게 매월 셋째 금요일 63빌딩 옆 리버타워 2층 '하반'에서 오후 1시에 오찬을 함께하며 만나고 있으며, 퇴직 후 회원들의 거주지가 지방으로 많이 이주했지만, 김 실 회장의 열정으로 11명 내외가 출석하고 있으며 당일 오찬비는 회원들이 돌아가며 부담하고 있다. 10월 18일, 11월 15일, 1월 17일, 2월 21일 등 모임을 가졌고 다음 모임은 3월 21일에 갖기로 했다.



도암회

삼목회(경기 모임) ●●●

기록적인 무더위로 7월과 8월은 쉬었고, 9월 26일 우면산 무장애길, 10월 17일 올림픽 공원, 11월 21일 남산 둘레길을 걸었다. 다음은 동절기를 피해 3월 20일 삼목회의 창립지인 '옛골'에서 만나 청계산 어둔골을 걷기로 했다. 회원들이 경기도 지역으로 이주하여 박인우 회장 외에 김경학, 김근도, 김병수, 김순구, 김승현, 김택원, 민병직, 박무용, 박광옥, 박수죽, 박진자, 성영일, 윤종완, 이건태, 이경순, 이근, 이완, 이원태, 이채영, 전춘옥, 정무광, 정시균, 정홍진, 정희진, 최창규, 최민자, 하준기 등의 회원 중 매월 10명 내외의 회원이 함께 걷고 있다.



삼목회 올림픽 공원 걷기

이월회(양재동 모임) ●●●

씩수달 둘째 월요일 낮 12시 30분 양재역 1번출구 앞 '왕삼돈'에서 만나 친목을 도모하고 있으며, 10월 14일, 12월 9일, 2월 10일에 이어 4월 14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다. 특히 2월 모임에는 독일에서 귀국한 김지균 회원이 오랜만에 참석하여 근황을 들었

다. 성영일 회장 외에 김윤장, 김순구, 김근도, 김승현, 김우찬, 김지균, 김충흥, 박인우, 양재광, 왕규철, 이병우, 이복성, 이창웅, 이채영, 이준원, 정시균, 정희진, 채갑병 등 19명의 회원들 중 12명 내외가 참석하여 오찬을 함께하며 우의를 다지고 있다. 오찬 비용은 회원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며 부담하고 있다.

광암회(강남지역 모임) ●●●

홀수달 둘째 화요일 12시 교대역 11번출구 앞 오리집 '참배나무골'에서 인삼주를 반주 삼아 훈제오리를 함께하며 친목을 다지고 있는 모임이다. 오랜만에 1월 14일에 11명의 회원이 모여 그간의 근황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당일 오찬은 이채영 회장이 부담했다. 근처 다른 모임에 왔다가 뒤늦게 들른 김승유 회원과 오랜만에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3월 11일 모임에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채영 회장 외에 김승유, 김근도, 김길남, 김병수, 김순구, 김승현, 김우찬, 김윤장, 김지균, 민병직, 박광옥, 박수죽, 박식익, 박인우, 성영일, 신남용, 양재광, 왕규철, 이근태, 이근창, 이경순, 이병우, 이준웅, 이창웅, 장경작, 정시균, 정무광, 정홍진, 채갑병, 최 섭, 최창규, 하준기, 황인강 등의 회원 중 매회 10~15명 내외가 참석하고 있다.



광암회

청춘대학(실버학교) ●●●

청춘대학은 매월 다음 달 모임 날짜를 정하여 만나서 맛난 음식을 즐기고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겨 근황들을 나누고 은퇴 후의 행복을 추구하며 맛집과 명승지 순례와 여행을 즐기고 있는 소모임이다. 11월 30일, 12월 21일, 1월 25일, 2월 22일 등 강남의 '고향마을', '통영마을' 등에서 만남을 이어오고 있으며 김순구, 박인우, 박진자, 이원태, 오영희, 이채영, 최민자 등 7명이 참석하여 서로의 건강과 여행에 대한 의견들을 나눈다. 그간 해외여행은 백두산, 대마도, 장강크루즈, 큐슈 등을 여행했고 10월 18일 모임에서는 혼슈 중부지역을 돌아보되 이번 여행은 힐링을 목적으로 편하게 즐기고 맛있는 것을 먹고 많이 보기 위해 아침부터 설치는 대신, 느긋하게 아침 먹고 모닝커피 향도 즐기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관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치가와 시(市)에 숙소를 정하고 도쿄 센소지, 하코네 온천, 요코하마 가마쿠라 방문, 후지산 구경, 츠키지 수산시장, 도쿄 신주쿠 번화가와 백화점 등을 관광하기로 했다. 오랜 불황으로 수도권지역도 활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무표정하고 도시 건물에 잠자리와 접시 안테나가 아직도 설치되어있고 전철은 직원이 개찰구마다 입회하여 옛날 기차표 같은 종이 티켓을 주로 사용하고 일부만이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환승 때마다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이한 점은 전철 변에 방음벽이 없고, 고압선들이 주택가 지붕 위로 지나가고 있었다. 기대했던 후지산 관광은 날씨가 나빠 호수와 주변 관광지만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고 하코네에서도 역사 깊은 '하코네유료(箱根湯寮)'에서 온천욕하고 별식을 먹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청춘대학 센소지 방문



62 회장 남영현 / 총무 한상욱 / 감사 송기현

62동기회 송년모임 및 정기총회 ●●●

2025년 을사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62학번 신임 회장으로 남영현 동기를 2024년 11월 21일 총회 및 송년회에서 회원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감사와 총무는 송기현 동기와 한상욱 동기가 연임되어 수고해 주기로 했으며 62학번 동기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이 관심을 갖고 성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강남 해초록에서 진행된 정기총회와 송년회에서는 회원 부인들과 같이 동기회 기념사진을 찍고 즐거운 식사를 하며 환담을 나누고 내년을 기약하며 모임을 마무리했다.



남영현 회장



송년모임 및 정기총회

64 회장 박재진 / 사무총장 이석훈 / 감사 김인철

등산회 송년 모임과 회장 변경 (등산회장 : 신준철, 등산대장 : 고병선) ●●●

- 일시 : 2024년 11월 30일(토)
- 참석자 : 강동식, 권영기, 김귀분, 고병선, 고충효, 김광수, 김덕명, 김동훈, 김현희, 박명익, 박재길, 신준철, 안덕수, 유명식, 유성준, 이석훈, 이용규(17명), 강용민, 김덕환, 김윤호, 박재진, 박태웅, 송병열, 이강훈, 이정구, 지동직, 최양섭(10명)

오랜만에 눈 내린 둘레길을 걷게 됐다. 길이 걱정이 되어 신준철 등산회장은 세 번씩 사전 답사한 사진과 함께 눈이 많이 내렸지만, 우면산 데크길은 장애가 전혀 없이 눈이 깨끗이 치워진 길을 보여주고 모임을 소집 통보했다. 눈길 낙상에 대한 걱정으로 식당에 직행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눈 위로 가자. 뽀드득 뽀드득 소리난다야”라며 기대한 등산로는 데크길로 가기 때문에 눈 밟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날씨가 영상 기온으로 비교적 포근한 겨울이어서 주변이 흰 눈으로 뒤덮힌 길은 나름대로 운치가 있었다. 언제나 부부 함께 참석해서 과일 등 사이참을 준비해 오시던 김동훈의 짝 고(故) 이하자 여사는 하늘 가까워서 우리를 내려다 볼거라며 백두산 천지를 함께 올랐던 추억이 그리웠고 동기들의 조문 답례로 김동훈 회장이 오리를 주꾸미에 곁들여 피자과 막걸리로 점심을 푸짐하게 대접하는 끈끈한 정을 표실했다. 송년 등산회로 새로운 등산회 회장이 인사, 권영기 회장과 그의 짝 김귀분 교장 선생님이 만년 등산대장이신 고병선 회장과 함께 내년을 맡기로 해서 더욱 든든하고 기대되는 내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우리는 등산회 송년회를 마쳤다.



등산회 망년회

64동기회 총회 및 송년회 ●●●

- 일시 : 2024년 12월 3일(화)
- 장소 : 양재역 스포타임 5층 멜론룸
- 참석자 : 강동식, 강용민, 고병선, 고충효, 권영기, 김건수, 김광수,



정기총회 및 송년회

김덕명, 김덕환, 김동훈, 김명수, 김상규, 김용수, 김용운, 김윤희, 김인철, 김장수, 김철주, 김현희, 문의언, 민선용, 박명익, 박일규, 박재진, 박채길, 박태웅, 박태원, 서상근, 손경식, 송병열, 송철호, 신방호, 신준철, 안덕수, 유명식, 유성준, 이강훈, 이경희, 이기석, 이석훈, 이성희, 이영표, 이용규, 이정구, 이태경, 임성인, 장한기, 정원교, 정재성, 조재복, 지동직, 최수호, 최양섭, 최종욱, 최종한, 최훈일, 한만섭, 허석도, 동기가족 2명(6명)

2년 임기를 끝내게 되는 안덕수 회장의 열화같은 정성이 결실을 보여 작년과 비슷한 6명의 다수 인원이 자리를 메워 64학번동기회의 저력을 보여준 잔치였다. 내년 집행부 선임에서 회장 박재진, 총장 이석훈, 감사 김인철을 만장일치로 박수쳐 임명했다. 오랜만에 참석한 동기들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회비 없이 참석해도 되는데 대부분이 협찬금을 찬조했고 특히 김춘식, 안상철, 이상민, 임태수, 정대영, 정철현, 진천용 등은 찬조금을 보내고도 여러 사정 등으로 불참하여 아쉬움이 컸다. 우아하게 세팅된 만찬과 함께 넉넉하게 올려진 포도주, 그리고 격조했던 동기들간 붓물터진 대화가 풍성했고, 이어서 모교 통일융합연구원장 남성욱 교수의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과 트럼프 당선 후 대미 관계 등 시사 강의와 질의응답은 시의적절한 작금의 정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 이어서 그 많은 경품을 받고 언제나 마감 시간에 '썰작' 최훈일 동기의 선창으로 입실렌티를 외친 후 푸짐한 선물을 한아름 안고 행사장을 나서는 밝은 얼굴들의 동기들은 내년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집에 와서 잠들려는데 역사적인 비상계엄령이 잠을 설치게 하는 날이었다.

백수회 수성동 백사실 계곡 산행(백수회장: 지동직, 등산대장: 이경희) ●●●

- 일시 : 2024년 12월 11일(수)
- 참가자 : 김광수, 박명익, 박채길, 유명식, 유성준, 이경희, 이석훈, 이용규, 지동직, 최종욱

경북궁역에서 내려 산행 목적지를 청와대 뒷산 북악산으로 정하겠다고 엄포(?)를 놓던 이경희 대장은 바람도 불고 춥다고 수성동 백사실 계곡으로 바뀌 정자에 모여앉아 겨울철 산행계획을 발표, 12월은 수요일만 모이고 내년 1월 한 달은 방학한다고 말한 후 가져온 새참을 소개했다. 유성준은 보온병에 오뎅을 담아왔고, 최종욱은 황금향 밀감에 베트남산 다람쥐가 먹고 배설한 커피를, 박명익은 족발에 찹쌀떡을, 이경희와 이용규는 막걸리를, 유명식은 병아리콩에 동글레차를, 지동직은 각종 과자통을, 박채길은 코코넛 크레커와 계피, 강황, 쌍화차, 생강차가 합성된 보약차를, 김광수는 자체 개발한 사제차와 커피를, 이석훈은 과자와 따뜻한 약수물이 차려진 데에서 훈구 선생의 명리학적 시국 해설과 탄핵정국의 향후 전망을, 유성준의 이육사의 시 '광야'를 낭송하는 기염을 토했는데 특별히 선정된 안국역 고기집에서 지난 6일 경영대 교우의 밤 행사에서 경품으로 퍼터가 당첨된 유명식이 이를 이용규에게 양도함으로써 기념행사 턱을 유명식이 사고 돈은 이용규가 내도록 결정해서 먹었던 명세서는 이리했다. 소갈빚살과 차돌박이 12인분, 막걸리 7병, 벤또 도시락에 계란후라이를 덮은 된장국 세트 등 호화로운 식대가 자그마치 무려 32만 원! 허리가 휘어지는 부담을 간신히 부축해 피면서 모임을 마무리했다.



백사실 정자에서

백수회 청계산입구 영주한우집 식사 모임 ●●●

- 일시 : 2024년 12월 18일(수)
- 참가자 : 김현희, 박명익, 박채길, 신준철, 유명식, 유성준, 이경희, 이석훈, 이용규, 지동직, 최종욱, 홍현욱

겨울철에는 백수회 소집이 날마다의 일기를 감안해서 통보되곤 하는데 이날도 교외에 모여서 식사만 하자는 이경희 대장의 제안으



식사모임 (왼쪽에서 두번째가 지동직 동기)



로 비교적 한가한 오후 1시에 청계산 입구역에 위치한 영주한우집에서 만나기로 하고 가성비 좋은 한우 불고기와 우거지탕에 막걸리 한잔하는데 지동직 회장의 대를 이을 손자가 서울고와 모교 경영대에 합격해서 학력 바톤 터치하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 2년 전에도 손녀가 고대에 합격하는 경사로 두 번씩 턱을 낸 적 있다. 좋은 일은 축하해주고 유성준이 가져온 양주와 최종욱의 황금향과 다람쥐 똥 커피는 금상첨화였다. 행사 마무리를 아포가토 아이스크림으로 장식했다.

백수회 신년 하례식 (양재시민의숲 걷기) ●●●

- 일시 : 2025년 1월 4일(토)
- 참가자 : 김광수, 박명익, 박채길, 신준철, 유명식, 유성준, 이경희, 이석훈, 이용규, 지동직, 최종욱, 홍현묵

1월은 백수회 방학 중이라 모임이 없었는데 신년 하례식을 갖자는 통보가 와서 열두 명 오리지널 멤버들이 모였다. 양재역에서 평지 구간을 골라 아파트 옆길에 잔설이 쌓여 있었지만 걷기에는 문제 없었고 낙엽이 떨어져 나뭇잎이 된 플라타너스가 희게 별거벗은 모습으로 우뚝 솟아 있어 삭막해 보이는 겨울날, 낙엽은 바람에 굴러 다니고 마른 풀이 바람에 스러지는 시민의 숲길을 걸었다. 한우 우거지집에서 뜨끈한 국물과 막걸리로 녹작지근한 삭신이 금세 풀려 졌다. 기계유씨 성준이 점심을 사서 당초 이경희 대장이 사려던 것을 뒷날로 미루게 했다. 이경희 대장은 호떡과 아포가토 아이스크림으로 대원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양재시민의숲 걷기

백수회 개학식 (안산자락길 걷기) ●●●

- 일시 : 2025년 2월 15일(토)
- 참가자 : 김광수, 박명익, 박채길, 신준철, 유명식, 유성준, 이경희, 이석훈, 이용규, 지동직

1월 방학을 끝내고 을사년 개학식에 오랜만에 모였다. 일찍부터 이경희 대장이 점심을 산다고 광고하였고 날씨도 영상으로 포근한 봄을 준비하는 늦겨울에 백수회원 10명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독립문역에서 출발하여 데크로 깔린 안산 자락길은 산책하는데 무리가 없었고 정자에서 막걸리와 커피, 차를 마시며 답소를 나눈 뒤 내려왔다. 이경희 대장이 사는 굴국밥 점심과 탁주가 꿀맛이었고 지동직 회장이 잉어빵을 디저트로 대접했는데 다같이 호호 불면서 먹는 장면도 한 컷 찍었다. 방학 한 달이 얼마나 지루했으면 몇 사람씩 '번개'를 통해 모임을 이어가며 이렇게 십여 년 함께한 전통을 다지고 있다.



안산자락길 걷기

66 회장 김응년 / 총무 정 발

66학번동기회 소식 ●●●

66동기회는 매년 연회비는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이며 각자의 형편에 맞는 금액을 선택, 자진 납부하고 있다. 반면, 66동기회에서 매년 설 이전 명란젓, 7월 중순 감자와 옥수수, 10월 중순 노란



동기회 모임

사과(시나노 골드)와 10월 하순 사과, 대추를 회원들에게 택배 송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약 1,170만 원 송부 완료/55명) 66동기회 정기총회 및 신년 하례회는 매년 2월 셋째 월요일에 개최하여 그해의 행사 일정 및 기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3월회(회장: 김종열, 총무 : 최문봉) ●●●

매월 셋째 월요일에 점심을 같이하며 회원들의 안부를 묻고 건강을 기원하는 모임이다. 66동기회 회원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현재 약 25명 정도가 참석 중이다. 옛날에는 집안에 애경사가 있는 동기들이 식대를 부담했으나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 참석자들에게 회비를 걷거나, 66동기회에서 가끔 대납하고 있다.



3월회

호구회(회장: 신경조, 총무 : 김웅한) ●●●

매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만나 당구인들의 실력을 뽐내는 모임이다. 당구장은 양재동에 정해져 있으며 회원은 약 15명 정도이다. (최고점자 : 500, 최저점자 : 200) 호구회 연회비(10만 원)로 분기별 회식을 하며 취미생활과 건강을 동시에 향유하고 있다. 회장이 상금을 내어 팀별 혹은 개인별 시합을 하고 연말에는 우승자, 준우승자를 가려낸다.



호구회

2수회 (회장 : 남효국) ●●●

매월 둘째 수요일 11시에 만나 서울 근교 유명코스의 걷기 모임을 하고 있다. 현재 약 110회를 운영 중이며 회장은 미리 다음 달 걸을 장소를 사전답사, 회원들에게 카톡 공지한다. 점심과 커피를 같이 하며 건강과 우정을 나누고 있으며 현재 약 15명의 회원이 모이고 있다. 식대는 옛날 모아둔 자금이 있어 충당이 가능하나 회원 중 누군가가 자원하여 내고 있다.



2수회

2금회 (회장 : 이판철) ●●●

회장은 가나다순으로, 1년 단위로 맡고 있으며 2025년은 이판철 회장이 이끌고 있다. 매월 둘째 금요일에 상대 중 금용계 출신들이 만나 회원들의 건강과 안부를 묻으며 점심을 같이하고 현재 회원은 약 15명이다. 식대는 가나다순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 납부한다.



2금회



66학번동기회 정기총회 및 신년 하례회 ●●●

66학번동기회 정기총회 및 신년 하례회가 예정대로 2월 17일 월요일에 서초동 소재 '선궁'에서 개최됐다. 아직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37명의 동기들이 자리를 같이하며 아픈 동기들의 안부도 묻고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신에게 감사하며 많은 대화들이 오갔다.



신년 하례회

68 회장 이차복 / 총무 김종윤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 ●●●

- 일시 : 2024년 11월 25일 (월)
- 장소 : 종암동 소재 '유정'
- 참석인원 : 22명

이 날 이차복 회장의 25년도 활동 계기등 발표에 이어서 오랜만에 나온 동기 김세일, 최석신, 황대현 동기 등이 본인의 근황을 소개했으며 성지환 동기가 격려사를 했다. 특별히 이차복 회장이 준비한 버섯주와 포도 그리고 조현익 동기가 준비한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인근 노래방으로 옮겨 흥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모임에서 내년 개교 120주년 기금모금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

2025년 제27대 68학번 회장에 이차복 동기를 선임 ●●●

2024년 12월 3일 교우회관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이차복 회장 선임을 알렸다. 이날 약 100여명 교우가 참석해 이차복 회장의 선임을 축하했다. 특히 이번 모임은 교우회관으로 장소를 처음으로 옮겨 뷔페식으로 식사했으며 식사후 미리 예약을 받은 순서대로 사전 준비된 노래방 기계를 이용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아 래 —

* 이차복(경영68) : 안전회계법인 발기인, 교우회 감사(10년)

* 회장 임기: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이차복 회장



전체 68학번 정기총회

69 회장 조현웅 / 총무 이영식

2025 신년회 모임 ●●●

69학번동기회는 2025년 1월 23일 오후 1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에 위치한 이도공탕에서 오랜만에 부담 없이 새해맞이 회식 자리를 가졌다. 참석한 동기들 10명은 김용언, 정태호, 조현웅, 박지덕, 이영식, 정중하, 김재찬, 장백희, 김영호, 김용기다. (행사 후 이영식 총무는 영상 제작하고 배포했다.)



신년 모임

72 회장 남덕우 / 사무총장 장석산

2025년 신년하례회 ●●●

· 일시 : 2025년 1월 7일 (화)

2025년 새해가 밝아 경영72동기회는 신년하례회를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과 중국의 근현대 수묵화를 비교 전시하는 ‘



남덕우 회장



장석산 총무



신년하례회

한중 수묵화 특별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시작했다. 43명의 동기들이 모여서 아주 진지하게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과 중국의 근현대화의 발전과정을 비교할 수 있었다. 해방 이후는 양국의 이념과 정치체제의 차이로 해서 극명한 차이가 보이는 것도 흥미로웠다. 전시회 관람 이후 덕수궁 경내를 산책하고 인근 덕수궁이 내려다보이는 식당에서 즐거운 오찬과 함께 경영72동기회의 회장단 이취임식이 있었다. 지난 2년 동안 수고하신 최성진 회장과 류병기 사무총장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후임으로 남덕우 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경영72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오찬에는 고려대학교 교우회 전 회장 구자열 회장께서 대접한 맛있는 식사와 함께 도수 높은 고량주를 곁들이니 전체 분위기가 상당히 고양되었다. 남덕우 회장의 “고고고” 건배사에 모두가 호응하니 올 한해는 모두가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할 것으로 확신한다.

경영72산악회 시산제 ●●●

· 일시 : 2025년 3월 1일 (토)

경영72산악회는 올해의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기원하기 위한 시산제를 북한산 기슭에서 거행했다. 요즈음은 옛날처럼 많은 인원이 참가하지는 못하지만, 전문 산악인 같은 이원의 산악회 회장을 포함한 산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동기 16명이 모였다. 경영72산악회는 매월 첫째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만나 산행을 하는데 이날은 삼일절과 탄핵 찬반 집회가 시내 중심인 광화문 인근에서 대규모로 열리는 날이라 광화문역과 경복궁역의 대중교통이 말이 아니었다. 불편한 교통에도 불구하고 모인 동기들은 올 한해의 무사 산행을 산신령님께 기원하면서 일부는 승가사 그리고 다른 일부는 사모바위까지 산행



산악회 시산제



했다. 모름지기 우리의 희망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여 구구팔팔 이삼사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73 회장 신준식 / 총무 김순배

경영73동기회 신년 모임 개최, 신임 회장단 선출 ●●●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삼성동소재 해담채에서 신년하례 및 정기총회가 있었는데, 모두 38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그동안 동기회를 발전적으로 잘 이끌어 온 현기춘 회



신준식 회장



김순배 총무



신년 모임

장과 유장근 총무의 인사 말씀과 재무 보고가 있었다. 현 회장은 지난 8년간의 경과를 회고하면서 동기회가 잘 운영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동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아울러 73학번 입학5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1년여 전에 있었던 ‘교우 50년, 인생 70년’을 자축하는 베트남 단체여행 행사를 즐겁게 마친 데에 대한 소회를 피력했다.

이어서 신임 회장단 선임이 있었는데 회장으로 신준식 동기가, 그리고 총무로 김순배 동기가 선출되었다. 신임 회장단은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동기회가 더욱 발전하고 모임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특히 전체 모임과는 별도로 당구, 바둑, 트레킹, 스크린 등의 소규모의 동아리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만찬 시간에는 동기들의 개별 근황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준식 회장은 최근에 공개한 ‘출산치하장려금’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취지와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에 조만간 수혜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권순성, 나상수 두 동기가 있어 부러움을 샀다. 박동수 동기는 90대 중반을 넘기시고도 독신의 생활을 고집하시는 부친(교우로서 상과대학 대선배)의 근황을 전해 주었다. 살림을 직접 하시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내에서 점심 약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박 동기가 생각하는 부친의 건강 비결은 소식이라고 한다. 유장근 동기는 통산 일곱 번째 해외 트레킹으로 올해 이탈리아 종단 (약 1,000km) 계획을 밝혔다. 부부의 강인한 체력과 용감한 도전정신에 모두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김형준 동기의 바이올린 연주가 있었다. 학창 시절부터 수준급이었던, 자칭 고려대 음대 출신이라고 자부하는 김 교우는 우리에게 익숙한 ‘대니보이’, ‘선라이즈 선셋’, ‘낭만에 대하여’ 등의 감미로운 곡을 들려주어 잠시나마 젊은 시절의 추억에 잠기게 해줬다.

당구동아리 출범행사 가져 ●●●

지난 3월 5일(수) 동기회의 당구동아리 창립 모임이 선릉역 근처 J당구클럽에서 있었다. 모두 10명의 동기들이 참석하여 평생 갖고 닦은 기량을 맘껏 발휘했는데,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자 류용일 동기가 부상으로 경기에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당구 후에는 인근 식당에서 뒤풀이 모임을 가졌는데, 앞으로 당구 동아리를 이끌어갈 일꾼으로 이인철 동기를 만장일치로 추대하였고 이에 이 동기가 흔쾌히 수락해 주었다. 그리고 당구 모임을 월2회, 첫째 수요일과 셋째 목요일(1수3목)에 정례적으로 갖기로 했다. 저녁 자리에는 마침 근처에 사무실이 있는 김영만 동기가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고 식사비용까지 부담해 주어 동기들의 고마움을 샀다.

* 참석자(숫자는 3구 점수) - 나상수 13, 류용일 24, 이인철 13, 김순배 11, 김규상 20, 노대균 14, 천승희 12, 현기춘 10, 이규빈 13, 이필승 12

경영74 도봉산 만월암 가는길 ●●●

· 일시 : 2025년 1월 29일 (수)

선달그믐날 안암골 동기 셋이서 도봉산역에서 9시 3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동기 하나가 같은 도봉산역인데도 잘못 내려 같은 역이지만 끝과 끝이라 10분 이상 지나서야 만날 수 있었다. 반갑게 만난 우리들은 북한산 입구로 향해가는데 돌아오는 등산객들하는 말이 입구가 봉쇄되었다고 한다. 긴가민가 하면서 입구에 도착하니 어제, 오늘 많은 눈 때문에 봉쇄되어 입산 불가하여 수락산으로 가시라는 안내가 있었다. 그래도 아이젠과 스틱을 준비해온 우리들은 미련이 남아 미적거리며 만월암 주지 스님께 못간다고 전화를 드리는데 스님께서 기도나 제사 이유로 허락하시면 본인 책임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공원 관리인의 말씀에 전화를 연결하여 확인해주고 명부에 신상을 기록하고 계속 내리는 눈을 맞으며 아이젠을 착용하고 스틱을 굳게 잡고 만월암을 향하여 오르기 시작했다. 눈이 꽤 많이 쌓여 등산로를 가는데 어렵지만 묵묵히 쌓인 눈과 대화하며 올라갔다. 한참을 올라가니 천축사와 만월암이 갈라지는 삼거리가 보이고 조금 더 올라가니 도봉산장과 커피샵 간판이 보이고 산장 가는 계단에 눈이 치워져 있어 우리들의 발길을 안내해주었다. 산장에 들어가 맛있는 드립커피 한잔에 추위를 녹이고 산장 주인과 이야기를 나눈 뒤 다시 만월암으로 향했다. 그곳을 가는 길은 인적이 거의 없고 눈이 꽤 많이 쌓여있어 길 찾기가 쉽지 않았으나 등불이 있어 큰 어려움 없이 만월암을 연결해주는 마지막 계단까지 오를 수 있었다. 만월사 근처에 염불 소리가 스피커에서 들려오고 스님이 나와서 반기니 역시 설중에 올라온 보람을 느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옷과 모자에 쌓인 눈을 털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이미 떡국 한 그릇과 맛난 김치가 차려져 있어 시장하던 차에 맛있게 한 그릇씩 해치우고 차 한잔하면서 담소를 나누다가 산 밑 식당에서 기다리는 권 감사를 만나기 위해 바삐 걸음을 재촉하여 내려갔다.



도봉산 만월암 앞마당에서

경영74 2월 남산걷기 (남산클럽회장 : 한호석) ●●●

· 일시 : 2025년 2월 8일 (토)

영하 11도 엄청나게 추운 날 아침에 안암골 경영74동기회에서 십수 년 동안 매월 첫째 토요일에 한 번씩 가는 남산트레킹 날이었다. 12명이 참석한다고 했는데 트레킹에 참석하는 동기들은 대한극장 앞에서 5명 그리고 2명은 남산 정상에서 만나 걷고 나머지는 바로 식당으로 간다고 했다. 아무리 추워도 우리 74동기들은 한 달 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쉬엄쉬엄 올라갔다. 트레킹 후, 늘 가던 냉면집으로 향했다. 우리 남산클럽은 냉면집에서 안암골의 상징인 막걸리를 빈대떡에 함께 마시며 운이 좋으면 편육과 소주도 한 잔씩 하는 모임이다. 우리 경영74모임을 총흥시킨 전직 74동기회장이 현재 남산모임의 회장을 맡아 이끌고 있고 소식을 전하는 저는 총장이닌 총무를 처음 만들때부터 지금까지 맡고 있다. 우리 모임은 매달 한 번씩 만나는 만남을 기대하는 모임이다. 경영74 파이팅이다! 오늘은 특별히 전에 따님 혼사가 있었던 동기가 식사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여 고마웠다.



2월 남산걷기



경영74 구자형 총무의 도서관 근무 ●●●

71세에 새롭게 봉사 일을 하게 되었다. 2025년 1월 2일부터 운이 좋아서인지 지역에서 봉사하는 기분으로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사서 보조로 일하게 되었다. 요즈음은 알람이 울리는 새벽 5시 10분쯤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일어나 양치하고 약을 먹고 핸드폰을 보다가 아침을 먹고 책도 보다보면 출근 시간이 다가온다. 8시 40분~45분쯤 도서관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키고 도서 반납함에서 책을 가지고 영업일 기준 하루 전날로 소급해서 정리하고 예약 서적 날짜 지난 것은 처리하고 상호대차 도서 날짜 지난 것은 다시 정리하고 도서 반납자들과 대출자들을 응대한다. 이렇게 사서 보조의 역할은 9시 정각에 업무 시작하고 도서관 내를 둘러본다. 9시 40분~50분 정도에 상호대차 책들이 도착하면 오늘 입수된 도서 수를 물어보고 자관 도서와 구립, 면목, 상봉, 숲(중량), 양원 숲, 중화 어린이, 기타 작은 도서관으로 분류하여 입수 처리, 자관 책들은 자관에 정리, 각 도서관 별로 가나다순 그리고 외국어 서적 순으로 정리하고 입수된 책들에서 4권 이상 상호대차 신청한 것과 가족 신청한 것을 찾아 묶어 놓고 도서관 신청인들을 대기하고 있으면 된다. 차근차근 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다보면 어느새 오후 6시 퇴근 시각이 다가와 업무를 정리한다. 바쁘지만 점심시간에 10분~20분 정도 짬을 내 봉화산 둘레길을 잠깐이라도 걷는 것이 낙 중의 낙이다.



작은 도서관 근무

경영74 3월 남산견기 ●●●

· 일시 : 2025년 3월 1일 (토)

지하철 연결 관계로 조금 늦게 도착한다고 메세지 보내고 총무로 남산 한옥마을 입구에 거의 뛰다시피 하며 서둘러 갔다. 한호석 남산회장, 조군환 전 동기회장, 정 영, 구자형 총장까지 4명이 반가이 악수하고 출발했다. 늘 하던대로 사진을 찍고 남산순환도로로 향했다. 조철래 회장이 국립극장 쪽으로 올라온다고 해서 부지런히 갔더니 조 회장이 먼저 도착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함께 도란도란 대화하면서 올라가 정상에 도착하니 버스를 타고 온 이민호 동기가 정상에서 우리를 반겨주고 있었다. 이제 정상에서 가볍게 총무로에 위치한 식당에 걸어갔는데 여느 때보다 조금 빠르게 도착했다. 소주, 막걸리에 빈대떡과 편육을 시켜 한 남산회장의 건배제의를 막걸리로 목을 축이고 이날 생일을 맞는 조철래 회장을 위하여 축하의 건배제의를 했다. 특별히 지난번에 아들과 딸의 혼사가 있었던 김희중, 정 영 동기가 감사의 식사를 사는 경우라 대표로 정 영 동기의 감사 인사 후 푸짐하게 안주를 시켜놓아 맛있게 먹었다. 두 동기들에게 다시 한 번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구자형 총장이 2월부터 시작한 기금모금에 대한 간단한 보고가 있었으며 다음 달 4월에 장재천 동기의 혼사가 있는 것을 미리 축하하고 우리 동기 모두 늘 건강하길 서로 기원했다.



3월 남산견기

경영76 산우회 소식 (산우회장 : 손봉원) ●●●

작년(2024년) 경영76산우회는 연초부터 매월 정기모임으로 1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산 둘레길 전체 21구간(71.5km) 걷기에 도전하여 마침내 11월에 완주하였고 상·하반기 특별산행도 했다.

상반기 특별산행은 2월 1일~3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7명이 제주도 한라산 눈꽃산행에 도전하여 관음사에서 성판악까지 약 9시간 소요되는 긴 겨울산행을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완주했다.

하반기 특별산행은 해외산행으로, 11월 21일~25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10명이 중국 명산 '화산과 송산' 트레킹을 다녀왔다. '화산'은 중국 5대 명산 중 西岳으로 2,473미터의 험준한 바위산인데 가파르지만 수많은 계단과 철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 조심하면서 비교적 안전하게 산행을 할 수 있었고, '송산'은 5대 명산 중 1,591미터의 中岳이며 유네스코 지정 세계지질공원으로 천혜의 절경을 곁들여 즐길 수 있도록 멋진 잔도(棧道)가 조성되어 있어서 가을 산행을 만끽할 수 있었다. 또한 화산과 송산 주변의 역사유적지인 진시황 병마용갱, 진시황릉, 소림사, 용문석굴, 서안성벽 등도 함께 관광하며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동기들 간의 우애와 함께 건강도 다지는 소중한 경험의 시간이었다.

2025년에는 동기들 의견을 반영하여 매월 정기모임은 둘레길 걷기와 산행을 격월 단위로 번갈아 가며 실시하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상·하반기 특별산행(울릉도 섬산행 5월 말, 중국 백두산 10월)도 계획하고 있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듯이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도 챙기고 동기간의 우애를 다지는 데 산우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느끼며 앞으로도 우리 모임이 적어도 80대 나이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중국 명산 특별산행(용문석굴)

경영76 송년모임 및 총회 ●●●

경영76동기회(회장: 장영린, 총무: 김덕만)에서는 2024년 12월 10일(화) 오후 6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오크우드호텔 5층 오크레스토랑에서 송년회 및 정기총회를 가졌다. 코로나 팬데믹(2020년~2022년) 이후 3년 만에 재개한 2023년 11월의 전체 모임에 이어 2년 연속 같은 장소에서 작년(28명)보다 많은 33명이 참석하여 와인과 함께 맛있는 뷔페 음식을 즐기며 건강과 일상을 중심으로 담소를 나눴다.



송년회 및 총회

1부 식사에 이어 오후 7시부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덕만 총무의 개회 선언 후 장영린 회장의 지난 1년간 동기들의 협조와 소모임인 골프회(회장: 임완순), 산우회(회장: 손봉원), 기우회(회장: 장영린)의 활발한 활동에 대한 감사와 아울러 앞으로도 동기기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는 인사말이 있었고, 총무의 2024년 활동(자녀 결혼 5건 및 弔事 11건 등) 및 회계보고(회비 납부 74명)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23년 총회 시 2024년 말까지 총무를 맡기로 했던 김덕만 동기를 회장 임기와 맞춰 2025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만장일치로 추인하였다. 기타 안건으로, 2026년 입학 50주년 모교방문 적극 참여와 회고수상집 발간 추진, 2027년 해외여행 추진, 회비 자율납부 등이 채택되고, 연회비(10만 원)를 납부했지만 사정상 송년회 및 경영대학 교우의 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동기들에게 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모임인 골프회, 산우회, 기우회 회장들이 향후 모임 활동 계획과 아울러 동기들의 더욱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2025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에 신경 쓰고 소모임 활동 등 동기 간 더욱 화합하고 경조사에 적극 참여하며 모교의 발전에도 관심을 갖



기로 했다. 이날 모임을 위해 각각 100만 원을 찬조한 이 범, 강형모 동기, 60만 원을 찬조한 장영린 회장, 30만 원과 달력 및 다이어리 세트를 찬조한 문덕식 전 회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를 보내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모임을 마쳤다.

79 회장 이상현 / 총무 오성호

고경79당구회(친구당) 베트남 해외 원정경기 ●●●

고경79당구회(친구당)에서는 2024년 11월 7일~11일까지 3박 5일의 일정으로 베트남 호치민에 해외 원정 당구대회를 가지기 위해 움직였다. 그간 지방(부산, 제주, 속초 등)에서 원정대회를 열다가 동양의 당구 강국 베트남까지 진출하게 된 것이다.

11월 7일 - 오전에 인천공항 출발, 호치민에 오후 4시경에 도착하여 예전 사이공으로 불리웠던 호치민 시내를 돌며 통일궁으로 바뀐 옛 대통령궁, 수리 중인 호치민 노트르담 성당 등을 관람하고 Happy Life Green Hotel에 여장을 풀었다. 저녁 식사 장소는 '나향'에서 베트남의 전통적인 푸짐한 식사로 첫날의 회포를 달랬다.



베트남에서 당구대회 개최

11월 8일 - 둘째 날에는 당구대회가 있는 날로서 아침 식사 후에 장기영(정외79)이 운영하는 당구장으로 이동했다. 장기영의 환대를 받아 쾌적한 2층 국제식 대대시설의 대부분을 사용하여 대회를 진행했다. 점심으로는 한국식으로 옛 추억의 짜장면과 볶음밥을 배달시켜 먹으면서 11명이 팀을 나누어 게임을 하고, 8명을 선발하여 8강전, 이어 4강전, 준결승, 결승전의 대회 운영규칙대로 진행되었다. 우승에는 장덕윤, 준우승엔 구상희, 3위엔 이성훈, 김정태가 차지했다. 다음엔 시내 중심부로 이동하여 스나이퍼 사격장에서 라이플 공기총 사격대회도 가졌다. 우승은 서유창, 준우승은 구상희, 3위는 오성호, 박현우가 차지했다. 식사는 역시 맛난 베트남음식과 면세점에서 사온 발렌타인 23년산의 조화로운 합작으로 즐거운 자리가 되었다.

11월 9일 - 셋째 날은 해변마을 무이네(Mui Ne)로 4시간에 걸쳐 이동했다. 도중에 9세기에 번성했다는 참파(Cham Pa)왕국의 사원을 둘러 잠시 관람했다. 빌린 주택 Bon Mua Homestay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서 무이네 해변으로 이동하여 점심은 샌드위치의 일종인 반미(Bahnmi)를 위주로 때우고 여촌마을에 둘러 석양을 감상했다. 해가 떨어진 후에 방문한 붉은 모래 사막은 붉은 색을 띠고 있는데 어두워서 환상적인 모습을 볼 수 없었기에 아쉬움이 남았다. 저녁식사는 파도가 치는 해변가의 킹크랩으로 유명한 Boke Mr. Crab에서 새우와 랍스터요리로 최고의 맛을 즐겼다. 숙소에 돌아온 멤버 중 일부는 새로운 이국의 문화를 체험하고자 움직였다.

11월 10일 - 넷째 날 아침으로 숙소 근처 마을식당의 마당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먹는 쌀국수도 일품이었다. 이어서 마침 최근래에 국제대회를 개최했다는 대형 당구장이 있어 다같이 옮겨가서 두 세시간 즐거운 당구 타임을 가졌다. 무이네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일 듯한 Sailing Club은 외국인을 위한 방갈로와 수영장, 해변이 어우러져 남국의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었다. 이곳 레스토랑에서 양식 위주의 피자, 스파게티 등으로 가벼운 점심을 하고 해변을 거닐며 추억의 사진을 담았다. 호치민으로 가는 길은 사 고로 통제된 고속도로와 국도 우회길에서 교통체증으로 한참의 시간을 허비했다. 그 덕에 벤틀시장과 사이공스퀘어의 거리를 돌아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저녁을 시내에서 간편하고 먹고 도착한 떼넷넛국제공항 제2터미널은 많은 여행객들로 붐볐지만 원활하게 출입이 이루어지면서 시간에 쫓길 뻔 했던 순간들을 잊게 했다.

11월 11일 - 비즈니스로 베트남에 남은 이종훈을 제외한 10명은 대한항공의 지연으로 먼저 도착한 동기들부터 귀가하면서 안전하고 즐거웠던 일정에 행복 지수를 한참 끌어올렸다. 이번 여행을 기획하고 리딩하며 즐거움을 선사해준 이성훈 회장과 서유창 총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KUFC79(축구모임) 2024 송년 해외여행 ●●●

사랑과 낭만의 섬 GUAM, Hafa Adai. 5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KUFC79(경영79축구회)에서는 10쌍의 부부와 단기(single) 2명으로 구성된 22명이 3박4일 콤파스로 송년 행사차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11월 29일 - 손꼽아 기다렸던 여행일, 이틀 전 내린 첫눈이 폭설로 인해 항공이 이착륙이 지연된 여파로 세 시간 늦게 출발하여 도착한 괌. 숙소인 Hoshino Resorts RISONARE 가는 길에 Sirley's Restaurant에서 늦은 저녁을 먹었고 예약된 별빛투어를 우여곡절 끝에 연기하고 늦은 시간에 숙소에 들어갔다.



슬레다르 요새의 코코넛 판매대 앞에서

11월 30일 - 여유롭게 출발한 시내 관광코스로 예정된 괌 중부지역에 있는 Santa Agueda 요새, 스페인 광장, 사랑의 절벽을 둘러보면서 괌의 전통과 역사를 잠시 엿볼 수 있었다. 괌은 제주도의 1/3크기로 한국 교민이 5000명이 살고 있고 대부분 관광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인의 방문을 제한하여 관광객으로는 한국인이 반 이상이라 한다. 오후에는 자유시간이지만 Guam Premium Outlet에서 추수감사절+Black Friday기간이라 50% 이상 할인행사 중으로 국내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함께 쇼핑할 수 있었다. 저녁식사는 Fish Eye Marine Park에서 프리미엄 석(제일 앞자리)에 앉아 Dinner Buffet와 차모르족의 Island 컬처쇼를 즐겼다. 고퀄리티의 공연과 맛있는 만찬에 특히 부인들이 좋아하며 공연에 몰입했고, 종료 후 출연자들과 사진 촬영하는 시간도 가졌다.

12월 1일 - 오전 자유시간을 이용하여 리조트에 있는 워터파크 풀장에서 수영과 슬라이딩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괌의 남부지역을 투어했다. 에메랄드 밸리에서는 물빛이 마치 빙하가 녹아 흐르는 에메랄드빛 물길을 만들고 있었고, Cettie Bay Overlook에서 바다와 나무를 배경 삼아 멋진 인생샷들을 남겼다. 이어 마젤란이 도착하여 마을을 만들고 세웠다는 슬레다르 요새에 올라 구경하면서 코코넛 수액을 마시고 속살을 사시미처럼 굽어 먹었다. 간단한 점심을 햄버거로 때우고 Inarajan Natural Pool에 도착하여 현지인 꼬마들의 다이빙을 구경하며 태평양 바다를 보며 멋진 사진들을 남겼다. 이제는 부부들이 다들 친해졌으며 편한 분위기를 즐겼고 가이드는 포토스팟에서 사진 촬영에 여념이 없었다. 저녁은 Tumon Beach에서 해변을 걷다가 근처 Sails Prime BBQ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바닷가재, 새우, 굴 등으로 구성된 푸짐한 저녁 식사에 배를 채웠다. 야간에는 별빛투어를 위해 Tanguisson Beach에서 수많은 별빛과 함께 쌍쌍이 부부들의 인생샷을 작품으로 남겼다. 이날은 당초 첫날 예약된 것을 도착지연때문에 미룬 것이지만 청명한 날씨 덕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12월 2일 - 오전에 몇명은 Water Park에서 수영과 물놀이를 즐겼고 대부분의 동기 부부들은 선물 구입을 위해 GPO를 방문하여 쇼핑과 점심식사를 했다. 충분한 쇼핑시간 확보를 위해 오픈런하여 싼 가격에 좋은 옷들을 마구 담는 부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시간이었다. 이동하다가 핸드폰을 분실한 일도 있었으나 친절할 한국인 출신 가이드인 운전기사의 도움으로 금방 찾는 해피엔딩의 해프닝이 있었다. 여행내내 즐거운 웃음과 행복한 모습으로 점철된 시간이었기에 동기 부부들 및 여성분들 사이가 매우 돈독해져 향후 부부관계와 FC모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확신한다. 수고하신 서종산 회장 부부와 이영태 총장께 감사의 말씀을 남긴다. 또한 행사를 위하여 찬조하고 격려해주신 동기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KUCC(경영79문화회) 2024 송년 모임 ●●●

- 일시 : 2024년 11월 22일(금)
- 식사 : 방선생웃음밥상
- 주제 : 화동미전, 연극관람

첫 번째 행사로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송상호 작가의 작품이 포함된 화동미전을 관람한 후에 인사동에서 대학로까지 늦가을의 따스한 햇살 속에서 창덕궁, 종묘, 창경궁 돌담을 따라서 즐겁게 걸었다. 두 번째 행사로 대학로에서 핫한 연극을 관람했다. 이제 동기들 모두 남성으로서의 자동화 단계를 넘어서 나이에서 거동하지 못하고 미동했지만, 연기자들의 광적인 연기와 위트가 청춘 시절의 연애를 회상하여서 웃음 짓게 했다. 세 번째 행사인 송년회에서는 와인 파티를 했다. 담소와 격려 속에서 송년 인사말과 더불어 허만길 회장이 문화모임 KUCC의 시즌1 종료를 선언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동기들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시즌2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과 멋진 모임이 되길 기대하며 건배했다. 다시 한번 약 2년 반 동안 문화모임의 발전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열렬히 참여한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면 너그러이 생각해 주길 바란다.



화동미전 관람(송상호 동기의 작품 앞에서)

2024 총회장배 챔피언십 ●●●

- 일시 : 2025년 1월 12일(일)
- 식사 : 여의도CV당구클럽

마침 서학석 전 회장의 불참으로 예비선수 허만길 동기가 참석하여 왕중왕전을 치렀다. 예선전을 3명 4개 조로 나누어 각 조 풀리그로 진행하여 각 조 1, 2위 8명이 8강에 진출했다. 8강에서 4강 결정전을 치른 결과, 이성훈/허만길/서종산/김명국 동기 중에 준결승을 통과한 이성훈과 김명국이 결승전을 겨루었다. 손에 땀나는 엄지락뒤치락의 역전, 재역전의 반복이 진행되다가 현 당구회장인 이성훈이 27:23으로 1점 차(핸디기준) 우승을 거머쥐었다. 3위는 서종산이 차지했다. 우승자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30만 원의 상품권이, 2위와 3위에게는 20만 원과 10만 원의 상품권이 주어졌다. 회장 하이런 상(5점 이상)에는 3명(5점 이상)에게 1만 원씩 주어졌다. 이상현 회장은 대회 종료 전 오후 6시께 참석하여 격려해주며 회식 자리에까지 남아 대회 축하와 당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우승을 차지한 이성훈 동기

고경79산우회 신년 수락산 산행 ●●●

- 일시 : 2025년 1월 25일(토)

고경79산우회에서는 신년 산행으로 서울 근교의 수락산행을 했다. 다행히도 날씨는 많이 춥지 않아서 산행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장암역에 10시 반에 모여 석림사 방향으로 산행을 시작했다. 간혹 밟히는 눈과 얼음을 피해 오름짓을 이어갔다. 산 중턱 쉬는 시간



수락산에서

에 보인 기차바위에서는 줄 잡고 오르는 산객들이 몇 명 보였다. 주봉 근처 삼거리에서 300m 근처에 있는 기차바위는 겨울이라 위험하니 다음에 가지는 집행부의 권유에 못 이겨 바로 주봉으로 향했다. 많은 산객들이 서울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위치인 주봉(해발 637m)에서 인증샷을 찍느라 줄 서 있었고 우리도 여기저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겼다. 자리를 옮겨 장군봉을 내려와 철모바위 근처에서 막걸리와 안주로 준비한 음식들을 나누고 하산길에 접어들었다. 근처에 보이는 코끼리바위, 종바위, 엄지바위, 치마바위 등의 아름다운 암석들을 감상했다. 도솔봉 못미처서 하산길로 내려와 영원암을 통과하여 수락산역에서 산행을 종료했다. 산행 거리는 약 9km, 산행 시간은 4시간 반. 전철을 타고 광운대역(구, 성북역)으로 옮겨 '더원'이라는 중식당에서 북경오리 세트와 몇몇 종류의 백주를 나눠 마시며 정초의 산행을 안전하고 즐겁게 했음에 위안을 삼았다.

신년회 및 총회 ●●●

- 일시 : 2025년 2월 3일(월)
- 장소 : 서초동 우리주막 그루터기

입춘에 나타난 최강한파에도 불구하고, 모임 시간이 되기도 전에 모여 자리를 차지하고 5분 늦은 동기들은 테이블 옆자리에 보조 좌석을 놓고서야 겨우 자리할 수 있었다. 왁자지껄한 음주와 식사가 무르익기 전에 2025 신년회 겸 총회를 하는 가운데 오성호 사무총장은 개회 선언을 하고 이상현 회장은 신년 덕담의 개회사에 이어 건강, 행복, 우정을 위한 건배사를 제의했다. 2024년 결산안 발표와 좌중의 통과 박수에 이어 방용원 감사가 나와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서 소모임 회장단에서 나와서 올해 추진사업계획을 간단히 발표했다. 골프회에서는 매월 대회와 함께 하계·연말캠프 운동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렸고, 산우회에서는 매월 산행과 연중에 해외 산행(일본)을 추진할 의사를 표했다. 당구회에서는 월례대회와 반기원정(부산)대회와 연말 결산 대회와 왕중왕전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축구회에서는 가족 체육대회와 해외축구 직관 여행 추진을 발표하여 좌중의 부러움을 샀다. 다음으로는 지난 2년 반 동안 문화회(KUCC)를 이끌며 동기들의 문화에 대한 갈증을 채워주고 작년 말로 시즌1을 종료선언하고 1년간 휴식기를 갖기로 한 문화회의 허만길 회장과 조성진 사무총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그동안 수고해온 운영진과 감사들에게는 그 공로에 상품권으로 감사의 인사를 대신했다. 45명이 모인 가운데 막걸리가 60병 가까이 쓰인 것으로 보아 'Sound Body, Sound Mind'가 인증된 것 같아 많이 기뻐다.

2024년도에 뜻깊은 행사로는 튀르키예 한국전참전용사기념사업회(회장: 이태영)에 440만 원을 기부했고, 경영대학에는 매년 3,500만 원씩 5년간 장학금을 기부하게 된 원년으로서 타과나 타학번의 귀감이 된 것이 동기회의 커다란 자부심으로 남으리라.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자주 만나면서 우정을 나누자는 이상현 회장의 종료선언으로 모임을 마무리했다. 감사하여 즐겁고 행복한 하루였다.



신년회 및 총회

고경79산우회 춘천 용화산 산행 ●●●

- 일시 : 2025년 2월 21일(금)

경영79산우회의 올겨울의 마지막(?) 눈 산행일 듯하다. 아침 일찍 신논현역에서 순대국밥으로 아침을 먹고 김명국이 운전하는 렌트카에 몸을 싣고 춘천의 용화산으로 향했다. 사여교를 지나 자연휴양림에 주차한 후 정상을 향해 움직였다. 북사면에 쌓여있는 눈 때문에 아이젠을 일찌감치 착용하고 올랐다. 사여령에서 고탄령, 안



춘천 용화산 산행



부로 이어지는 고개를 지나면서 넘어야 하는 봉우리들은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하며 산행을 힘들게 했다. 고탄령과 안부 중간쯤에서 행동식으로 막걸리와 과일, 안주 등을 먹고 휴식을 취한 다음, 정상을 가는 것을 포기한 두 명을 쉬게 하고 여섯 명이 용화산 정상(해발 878m)을 향한 걸음을 내디뎠다. 용화산은 용과 지네가 싸워서 용이 이겨 승천했다는 전설이 있는 만큼 정상으로 가는 길은 로프와 바위틈새를 넘나들며 험했으며 입에서 단내가 난다고 하는 동기가 있을 정도로 지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눈길은 사람들의 발길이 적어 러셀이 된 길이어도 미끄러지기 일쑤였다. 정상을 찍고 갔던 길을 되돌아오는 원점회귀 코스였지만 하산길 역시 눈길과 더불어 험했기에 하산 시간 역시 만만치 않게 걸려서야 안전하게 회귀할 수 있었다. 그나마 다친 사람 없이 안전하게 컴백한 산행이었다는 위로를 삼아 즐거움을 대신한다. 뒤편이의 춘천 숯불닭갈비는 나름대로 맛깔스럽게 새로운 품이었다. 산행 거리 12.5km, 순수 산행 시간은 6시간 걸렸다.

80 회장 권현준 / 총무 하만우

전체 모임 ●●●

2월 21일(금)에 경영80 동기들의 정기총회가 있었다. 당초 26명이 신청했지만 급한 일로 3명의 동기가 빠지면서 23명이 조출하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권현준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졌고 오랜만에 참석한 동기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장석수 동기는 기타를 배우고 있다면서 손끝 자극도 되고 팝송을 같이 부르면서 영어 공부를 하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며 기타를 적극 추천했다. 얼마 전 태국에서 아들 결혼식을 가진 권혁창 동기가 태국의 결혼식 전통을 설명했고, 김준경 동기는 유망 주식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고려사회 전문가인 이수영 동기가 노년 생활에 대한 조언을 했고 다른 동기들도 근황과 함께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간략하지만 알찬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거의 끝날 무렵 사진을 찍지 않은 것을 깨닫고 몇 장의 사진을 남겼다. 앞으로 5월에 있을 봄 야유회에 보다 많은 동기들의 참여를 기대하면서 올해의 첫 모임을 마쳤다. 분당팀은 끝날 무렵 와서 인사만 나눈 정현진 동기 덕분에 편하게 분당으로 넘어가서 방어회에 한 잔 더 하다가 헤어졌다.



정기총회

호산회 소식(회장: 한성수, 산악대장: 이현우) ●●●

· 2월 14일(토) 아차산 · 용마산 등산

날씨가 추워져 최저기온이 영하 7도라고 한다. 그래도 바람이 별로 없고 햇볕이 있어 많이 추운 것 같지는 않다. 2024년 송년 산행지는 작년 송년 산행지와 같은 아차산 · 용마산 둘레길이다. 작년에는 女산우들과 함께해서 많은 인원이 모였지만 이번에는 단출하게 9명이 참석했다.



12월 아차산, 용마산 등산

용마산역 2번 출구를 출발하여 용마폭포 옆을 지났다. 공사 중인 용마폭포는 인공폭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절벽의 길이는 꽤 길었다. 어떤 모습이 될지 궁금했다. 정상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옆의 굴터에 돛자리를 펴고 중풍을 했다. 최병수가 사온 꼬마 김밥, 김범중이가 길러 살아온 고구마, 김현우가 사온 김밥 등 여럿이 하나씩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 먹으니 배가 찼다. 오늘의 주된 대화 주제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예상. 참 다이내믹한 나라다.

종을 후 아차산 둘레길로 넘어갔다. 아차산 4보루에서 1보루로 이어지는 능선길은 대체로 평탄했다. 며칠 전 내린 폭설로 가지가 부러진 소나무들이 많이 보였는데 소나무도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운 폭설로 상처를 입는 것을 보니 우리도 어려운 문제들로 상처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에 동병상련의 느낌이 들었다.

하산 후 애프터는 아차산역 근처 서서갈비. 하만우 총무가 애프터에 참석해서 가까스로 두 자리 참석자 수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2차로 커피를 먹으러 가서 송년회 및 차기 호산회 임원을 선출하는 시간을 가진 결과 차기 호산회 회장은 한성수, 산악대장은 이현우 동기가 선출됐다. 호산회가 좀 더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집행진이 되었으면 한다. 호산회여 영원하라!

· 1월 18일(토) 안산둘레길 걷기

을사년 새해 호산회 첫 산행지는 추위와 얼어있는 지면 때문에 위험한 험한 산보다 둘레길이 잘 되어 있는 서대문구 안산으로 정했다.

독립문역 5번 출구에서 모여 산행을 시작했다. 최승석 고문과 정규언 고문이 오늘 산행을 리드하기로 하고 서대문형무소 옆을 지나 남쪽에서 북쪽으로 봉수대 방향으로 향하며 삼삼오오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했다. 오랜만에 참석한 서 정 고문과 장석수, 그리고 이창우가 그동안 못한 얘기가 많은지 풍성하게 대화 꽃을 피웠다. 코스가 평탄하고 진행 속도도 적당하여 그다지 땀도 많이 나지 않았다. 능안정을 거쳐 봉수대에 도착하여 근처에서 중풍을 했다. 각자 준비해온 김밥, 과일, 한과, 에너지바 그리고 커피, 꿀차로 조금씩 요기를 하니 꿀맛이었다. 봉수대를 출발하여 당초 홍제폭포를 목표로 하산하는데 눈이 얼어 미끄러운 구간에서 몇몇 넘어지기도 하고 내려오는데 애먹었다. 항상 좋은 때는 없는 모양이다. 홍제폭포로 가려는데 힘들다는 동기들이 많아 결국 홍제폭포는 다음에 가기로 하고 방향을 돌려 영천시장 내에 뒤풀이 식당으로 향했다. 도가니탕에 막걸리로 맛있게 점심을 하고 있으니 하행민, 임규화가 도착했다. 식사 후 근처 커피점에서 2차로 커피를 마신 후 헤어졌다.

호산회 새로운 집행진의 출범을 독려하기 위해 많은 동기들이 참석해 주었다. 신청했다가 사정상 참석못한 이진형, 함덕식 부부, 그리고 집안 행사로 일찍 돌아간 이기현을 포함해서 거의 20명이 이번 산행에 함께 했다. 참석한 모든 동기, 동기 사랑에 1인 1팩을 준비해 준 권 회장, 그리고 오늘 산행을 리드해준 두 고문들과 이현우 대장에게 감사드린다. 새해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호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호산회여 영원하라!!



1월 안산둘레길에서

· 2월 15일(토) 인왕산 등산

인왕산은 작년 3월에 갔던 곳인데 이번에는 코스를 달리하여 해골바위, 선바위를 거쳐 정상에 오르는 코스로 정했다. 며칠 전에 눈이 와서 아이젠을 준비해 오도록 했는데, 날씨가 많이 풀려 눈이 다 녹았다.

오늘 산행은 최승석 고문이 전체적으로 리드했다. 서대문형무소 옆을 지나 임시정부기념관으로 해서 구름다리를 통해 인왕산으로 넘어갔다. 가파른 경사의 계단 데크길을 쉬엄쉬엄 올라가니 금방 해골바위가 나오고 이를 지나 선바위로 내려가니 기운을 느끼는 사람들은 뭔가 감이 오는 모양이다. 기가 쎈 곳이란다. 선바위는 얼핏 보기에 고스트 영화에 나오는 유령같이 생겼는데,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성곽을 건설할 때 이 바위를 놓고 성 안으로 하자는 무학대사와 성 밖으로 하자는 정도전 간 분쟁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도 유명한 바위였다고 한다.



2월 인왕산에서



선바위를 보고 나서 그 위 공터에서 잠시 휴식하며 준비해온 간식을 먹고 성곽길이 있는 정상쪽으로 향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니 정상이 나오고 정상 표지판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나니 샷바위도 비어 있어서 그 위에서 작년에 못 찍었던 단체 사진을 찍었다. 멀리 기차바위가 보였는데 여전히 위협적이었다. 창의문 방향으로 하산길에 올라 바위와 계단을 밟으며 무무대 전망대까지 비교적 힘들이지 않고 내려왔다. 효자동 골목을 통해 서촌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로 접어들어 뒤풀이 장소인 '쭈먹'으로 향했다. 뒤풀이에 참석하기로 한 하만우, 임규화가 합류했고, 주꾸미찜, 계란탕에 막걸리 그리고 양념에 밥을 볶아 먹으니 맛도 좋았다. 2차로 예약된 LP카페에 가서 주당파는 맥주를, 나머지는 커피를 마시며 젊은 시절 들었던 노래를 신청해서 들으니 분위기가 새로웠다. 주당파 4~5명이 맥주를 거의 30병이나 마셨다. 최근에 좋은 일이 생긴 임규화가 골든벨을 울렸다. 학창 시절 즐겨듣던 음악에 취해 모두들 기분이 최고였다.

다음 산행은 3월 초 개나리가 필 때 남산에 가기로 했다. 더 많은 동기들이 오늘과 같은 즐거움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호산회여 영원하라!!!!

일수회 ●●●

일수회는 1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소모임으로 광화문 주변에서 모여 점심식사를 하며 사회적 관심사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에는 김형섭 동기 초청으로 강남에서 모였고, 이번 3월에는 여의도 지역 모임 재개를 독려하는 의미에서 여의도에서 점심 모임을 가졌다. 배기범 동기 초청 형식으로 근처에 사무실이 있는 양후석 동기 등 8명이 꼬리곰탕 맛집 '은호식당'에 모여 주식, 각국 음식 등을 주제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인원 충족은 안 되지만 회장의 허락 하에 동기회비에서 1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배기범 동기가 결제했다. 35,000원짜리 점심을 사준 배기범 동기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일수회 여의도 모임

86 회장 정경모 / 총무 박재한

고경86 마루회 2024년 11월 산행 ●●●

2024년 11월 2일 마루회 제6차 마지막 산행을 북악산 청와대 북측 구간에서 함께 했다. 교가에 나오는 '북악산 기슭에 우뚝 솟은 집을 보라~~'에 그 북악산을 오르고 점심은 삼청동 최고의 맛집인 '단풍나무집 삼청점'에서 숯불 제주 오겹살, 숯불 양념 갈비, 막걸리, 와인, 소맥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무엇보다 이날 산행에서는 2025년, 2026년 동기회를 이끌어갈 차기 집행부에 대해서도 논의해서 더욱 의미있었다.



마루회 11월 산행

고경86 송년회 ●●●

한해를 마무리하는 고경86 송년회를 2024년 12월 13일(금) 서초역 근처의 ‘리향’에서 했다. 평소에 바빠서 마루회나 호림원 모임에 잘 나오지 못하는 동기들을 비롯해 30명 넘게 모여 즐거운 한 해의 마무리를 했다.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옛날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등으로 즐거운 얘기를 나누고 중년의 고민 등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을 나눴다. 특히 내년으로 다가온 입학 40주년 행사에 관한 얘기도 미리 잘 준비하자는 의미로 언급했으며, 이번 기회에 준비 잘해서 다시 한번 동기 모임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송년회

고경86 마루회 2025년 1월 산행 ●●●

2025년 을사년 1월 4일(토)에 마루회 시산제를 겸한 올해 첫째 정기산행을 진행했다. 1월 산행코스는 청계산 옛골-이수봉-옛골이었다. 날씨는 그리 춥지 않아 겨울 산행하기 좋은 기온이었고 산길에 얼음도 거의 없어 낙상 사고 없이 무사히 산행을 마칠 수 있었다. 간식, 점심, 기념품 등을 후원해 준 동기들, 산행 준비에 수고한 마루회 집행부 그리고 무엇보다 참여한 모든 마루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



마루회 1월 산행

92 회장 최강근 / 총무 윤선규

92학번동기회 C반 소식 ●●●

2024년 12월 19일 김형진 동기가 추천해준 청담의 훌륭한 식당에서 경영학과 92학번 C반 송년 모임을 가졌다. 오랜만의 만남에도 늘 반가운 동기들과 서로의 근황을 묻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2025년 더 활기찬 모임과 활동을 기약하면서 모임을 마무리 했다.



C반 모임

95 회장 이규원 / 총무 최성훈

95학번동기회 C반 소식 ●●●

2025년 2월 11일 경영대학 95학번 C반 동기들이 모였다. C반 반장인 최승기, 총무인 최성훈, AT 커니 부사장인 김상규, 한양대학교 교수인 권신형 그리고 강남대학교 교수인 한준주 동기까지. 비록 5명밖에 모이지 않았지만 의를 다지고 친분을 나누었다. 다음에는 더 많은 동기들이 모이기를 바라며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간다. 사랑합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C반 모임



험한 세상을 사는 처세술 주역해설 상경

서명 험한 세상을 사는 처세술 주역해설 상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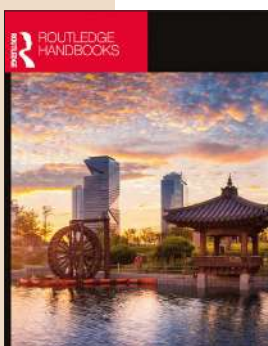
저자 유순근(경영79)

출판사 박문사

출판일 2024.11.15.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가는 것(窮則變 變則通 通則久)은 주역의 이치다. 험한 세상에서 오래 활용할 수 있는 처세술이 바로 주역이며,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설한 책이 주역해설이다. 본서는 난해한 주역철학을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여, 독자들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행동 지침을 제공하는 처세술이다. 자연은 개발로 인해 심각하게 파괴되어 환경 재앙이 발생하니, 인류는 자연을 회복하려는 환경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 환경도 탐욕과 저주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다. 정의, 도덕, 배려가 없는 三無 시대를 겪으며 인류의 공존이 차츰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과 정신환경의 중대한 파괴로 인해 인류의 번영과 조화가 저해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이제는 정의, 도덕, 배려를 회복하고 성공적인 삶과 조화로운 공동체를 되찾을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다행히도 사회적 정의와 성공적인 삶을 안내할 지혜를 바로 주역에서 찾을 수 있다.

본서에서는 주역에서 제시된 비유와 은유를 과거와 현재의 시각과 행동 전략 측면에서 해설한다. 이러한 비유와 은유를 이해하면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미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주역은 편협하고 폐쇄적인 사고, 망상적 엘리트주의에 빠진 광적인 집단주의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자신의 행적을 살펴보고 관직에 나아가거나 물러나는 것(觀我生進退)은 인성과 능력을 고려해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지도자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주역은 경고한다. 빼에 붙은 마른 고기를 씹다가 쇠화살을 얻음(噬乾肺 得金矢)은 깃털을 조사하다가 몸통을 발견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몸통을 조사하는 것은 권력과 조직의 비호가 커서 어렵지만, 바르게 수사하면 이름과 길하다는 뜻이다(利艱貞). 나라와 사회가 정의로우면 국민이 부유해지고 나라가 평화로워진다. 들은 광활하고 멀어 공명정대하며, 들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라가 형통하다는 뜻이다. 이제 공명정대하 넓은 들에서 정의, 도덕, 배려가 있는 사회로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이다.



Routledge Handbook of Korean Business and Management

서명 Routledge Handbook of Korean Business and Management

저자 배종석 경영대학 교수 외 3명

출판사 Routledge

출판일 2025. 2

본교 경영대학 배종석 교수(경영82)는 옥스포드 대학의 Chris Rowley 교수 등과 함께 편집자로 참여하여 영국의 저명 출판사 Routledge에서 한국기업의 경영에 대한 핸드북『Routledge Handbook of Korean Business and Management』를 2025년 2월에 출간했다. 36명의 국내외 경영학자가 참여해 서론 및 결론을 포함해 총 21개의 장으로 한국 기업 경영을 분석한 책이다. 핸드북에는 (1) 노동시장과 자본시장

에 대한 제도적 맥락, (2) 한국의 기업 경영과 관련된 거시적 이슈들인 지배구조, 전문 경영인, 대기업 그룹의 구조, 정부의 역할, 대기업의 성장 및 경영 전략, (3) 기업 경영의 미시적 이슈인 사람관리, 노사관계, 그리고 임금 보상, (4) 새롭게 대두되는 주제인 CSR과 ESG, 창업, 다양성, 4차 산업혁명과 고용, 그리고 (5) 도전과 미래의 경영 방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나눔으로 이어진 배움의 길

2024학년도 2학기 경영대학 장학증서 수여식



2024년 11월 20일, LG-POSCO경영관 안영일홀에서 경영대학(학장=김언수)이 주최하는 2024학년도 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경영대학 장학생 100여 명과 김언수 학장을 비롯해, 나현승 부학장, 고영건 교수, 배종석 교수, 서광수 감사와 김남기 96학번 동기회장 등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장학증서 수여식은 △개식사 및 내빈소개 △학장 인사말 △장학증서 수여 △고영건 교수의 특강 △만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학장 인사말에서 김언수 학장은 “장학금 수여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기부자분들로 인해 경영대학은 고경면학 장학금뿐만 아니라 생활비 장학금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운을 띄웠다. 이어 고경면학장학금 장학생 83명과 KUBS Dream Scholarship 장학생 87명 등 이번 장학금을 수여 받은 학생들에게 “학생들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언젠가 후배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인재로 성장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서광수 Dream Scholarship 장학금 수여를 시작으로 은민 Dream Scholarship을 비롯해 엠앤제이문화복지재단 장학금, 96학번 동기회 Dream Scholarship, 윤성훈 장학금 등 장

학증서 수여식과 사진 촬영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수여식과 함께 심리학부 고영건 교수의 ‘행복의 심리학’이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이 있었다.

고영건 교수는 “내가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며 타인에게 베풀고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학생들에게 축하의 말과 더불어 이 자리에서 강연을 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장학생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서광수 감사는 경영대학과 ‘기부’로 인연을 맺은 사연을 소개하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다시 기부하는 선순환의 연결고리를 이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윤성훈 박사는 “이른 나이에 기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얻었던 김재환 교수의 가르침에 보답하고 싶었다”며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에 매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장학금 수여의 가장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승현(경영24) 학생은 답사에서 “장학금으로 인해 아르바이트하지 않고 그 시간에 학교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기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끝으로 교가 제창과 단체 사진 촬영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경영신문 709호 발췌



고려대, '외교관후보자' 및 '기술고시' 전국 1위 석권

**'행정고시' 및 '입법고시' 사립대 1위, 4명의 수석 및 최연소 합격생 배출
2024 국가고시 지원체계 수립의 결실 맺어**

고려대가 2024년 국가고시 '외교관후보자' 및 '기술고시'에서 전국 1위를 석권했다. 또한, '행정고시'와 '입법고시'에서는 사립대 1위를 하며 이번 국가고시에서 4명의 수석 및 최연소 합격생을 배출했다. 이는 고려대의 체계적인 지원제도와 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만들어 낸 결과이다.

고려대는 2023년 8월 1일(화) 국가인재 양성이라는 목적 아래 국가고시지원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했다. 먼저, 고려대에 있는 9개의 국가고시 고시반(실)에 주임교수를 각각 임명하여 특강 관리, 강사 섭외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지도 상담, 의견 수용 등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관리했다.

또한, 기존의 국가고시 장학금을 확대 신설했다. 고시반(실) 총무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뿐만 아니라, 학부생 중 국가고시 2차 시험

성적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장학금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고려대는 고시반(실) 환경개선을 위해 문과대학과 생명과학대학의 고시실과 안암학사 고시동을 리모델링했으며, 1차와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모의고사 및 특강 지원, 5급 공채 면접 대비 교육 진행, 현직 5급 국가직 선배와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했다.

이처럼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구축한 결과 고려대는 '외교관후보자' 시험에서는 전년 대비 두 배에 달하는 1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개교 이래 최초 전국 1위를, '기술고시' 시험에서는 19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3년 만에 전국 1위를 탈환했다. 뿐만 아니라 4명의 수석 및 최연소 합격생을 배출했다. 이 밖에도 '행정고시'와 '입법고시'에서는 사립대 1위를 달성하며, 2024 국가고시에서 고려대는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사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전미현 학생처 Student Success Center 주임은 "본교의 국가고시 관리 및 지원에 있어 예전과 다른 가장 큰 변화는 총장님과 학생처장님의 의지와 추진력, 각 고시반 주임교수님들과 고시 선배들의 헌신"이라고 말했다.

www.korea.ac.kr

모교 중앙광장, 23년 만에 재단장

**두 차례 걸쳐 공사 예정
보행로 없는 잔디광장 조성**

고려대 중앙광장이 개교 120주년을 맞아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이달부터 시작하는 1차 공사는 3월 중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5~6월에 2차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사에선 중앙광장 양쪽에 데크를 설치하고 중앙 잔디구역 내부의 석재 보행로를 제거한다. 또 수목의 생육 환경을 정비하고자 중앙

광장 양쪽에 넓은 화단을 조성한다. 건축팀은 "안전 펜스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광장은 조성된 지 20년이 넘어 바닥 포장이 탈락하고, 석재 화단과 벤치 및 파라솔이 파손되는 등 시설의 상당 부분이 노후화됐다. 이에 1차 공사에선 노후 시설 및 바닥 포장 철거, 신규 벤치 및 데크 구조물 설치, 분수대 주변 정비, 교목류 식재가 예정돼 있다. 2차 공사에선 석재 보행로를 제거해 중앙광장을 하나의 잔디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차 공사가 완료되면 중앙광장 잔디구역 보행로는 제거된다.

제655호 교우회보(2025년 2월 10일자) 발취

고려대-한예중, 미래 교육을 위한 학문과 예술 융합 협약 체결

고려대 개교 120주년을 기념해 양교 간 교류 강화



고려대 김동원 총장, 한예중 김대진 총장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와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가 학문과 예술의 융합적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오늘 3월 21일(금) 오전 10시 30분, 고려대학교 SK미래관 최충현홀에서 개최됐으며, 양교 총장 및 교무위원, 교직원, 학생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교는 ▲전공, 마이크로디그리, 평생교육과정 공동 개발 등 교육 협력 ▲시드펀딩, 연구소 설립을 통한 공동 연구 협업 ▲예술교류, 전시·공연 행사 공동 개최 ▲올해 가을 학생 중심 Joint Festival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행사는 개회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양교 총장의 환영사, 주요 협약 내용 소개, 학생 대표 축사, 협약서 조인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협약식을 기념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학생들이 금관 5중주 공연을 선보였다. 이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오찬이 마련되어 실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www.korea.ac.kr

고려대, QS 세계대학평가서 마케팅 28위, 경영학 42위, 회계·재무 50위 올라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 (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25 QS 세계대학 학과

별 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2025)’에서 고려대학교가 ‘마케팅(Marketing)’ 분야 세계 28위, ‘경영학(Business & Management Studies)’ 분야 42위, ‘회계·재무(Accounting & Finance)’ 분야 50위에 오르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마케팅(Marketing) 분야는 13계단, 경영학(Business & Management Studies) 분야는 12계단, 회계·재무(Accounting & Finance) 분야는 7계단을 상승하며 전반적으로 큰 발전을 보였다.

특히, 마케팅 분야는 국내 대학 중 1위를 차지하며 우수한 교육 및 연구 역량을 입증했다. 고려대는 서울대(34위)를 앞서는 국내 마케팅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마케팅 분야 세계 1위는 하버드대, 2위는 옥스퍼드대, 3위는 스탠포드대다. 또한 회계·재무 분야는 국내 사립대 중 최고 순위를 기록하며 연세대

(51위), KAIST(52위)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회계·재무와 경영학 분야 모두 하버드대, MIT, 스탠포드대가 각각 1~3위를 차지했다.

김언수 경영대학 학장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국내 최초이자 최고의 비즈니스 스쿨로서, 2030년까지 아시아 1위, 세계 30위권 경영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영 인재 양성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QS 세계대학 학과별 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는 전 세계 100개국 1,700여 개 대학을 대상으로 55개 학과의 연구 및 졸업생 평판 등을 분석하여 발표된다. 순위는 △학계(연구) 평판도(Academic) △졸업생 평판도(석사 학위자 피고용능력)(Employer) △논문당 피인용도(Citations) △H-인덱스(H-index: 교수 생산성 및 영향력) △국제연구협력(IRN) 5개 항목을 평가해 산정한다. 고려대학교는 이번 평가에서 5개 통합 분야 △생활과학/의학(Life Sciences & Medicine) △기술/공학(Engineering and Technology) △자연과학(Natural Sciences) △경영/사회과학(Social Sciences & Management) △인문/예술(Arts & Humanities) 중 마케팅, 경영학, 회계/재무학을 포함하여 11개 학과가 세계 5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경영신문 제710호 발췌

행사비·회비 인상 안내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

항상 경영대학 교우회를 성원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2월 20일 상반기 상임이사회 결의사항에 의거하여, 물가 상승과 회비 납부 인원의 감소로 교우회 재정 확충 및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행사 참가비와 교우회 회비를 아래와 같이 인상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모아주시는 정성은 교우회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교우들의 결속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경영대학 교우회가 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참가비 인상

	변경 전	변경 후
힐링트레킹	2만원	3만원
교우의 밤	10만원	12만원

일반회원 연회비, 평생회비 인상

	변경 전	변경 후
연회비	3만원	5만원
평생회비	30만원	50만원

입금계좌 | **하나은행 391-910009-79704**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우회

★ 입금하실때 **학번, 성함 기재** 부탁드립니다.

예) 95홍길동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The Innovating Pioneer for a Sustainable Tomorrow

We create sustainable technologies to protect
human-beings and our planet.



미래를 향한 일진의 혁신은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진은 글로벌 No.1 자동차 휠 베어링 메이커로서
지난 50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혁신으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 하겠습니다



휠 베어링과 샤시부품에서 산업용 베어링, 로봇 부품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전 세계 고객들과 함께 합니다

ILJIN

국내법인 | ILJIN GLOBAL • ILJIN GLOBALHOLDINGS • ILJIN BEARING • ILJIN CORP • BEARING ART

해외법인 | 미국 ILJIN USA • ILJIN AMERICA • ILJIN ALABAMA 중국 ILJIN TIANJIN • ILJIN BEIJING • ILJIN CHONGQING • ILJIN JIANGSU • ILJIN SHANGHAI

유럽 ILJIN GmbH • ILJIN MOTION & CONTROL GmbH • ILJIN SLOVAKIA 인도 ILJIN INDIA • ILJIN GLOBAL INDIA

판매사무소 | PARIS (FRANCE) • TURIN (ITALY) • PUNE (INDIA) • BEIJING (CHINA) • YOKOHAMA (JAPAN) • SAOPAULO(BRAZIL)

일진그룹 본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27 Tel 02-553-1795 Fax 02-566-5621 www.iljin.com

일진그룹 회장 이동섭 (경영89)